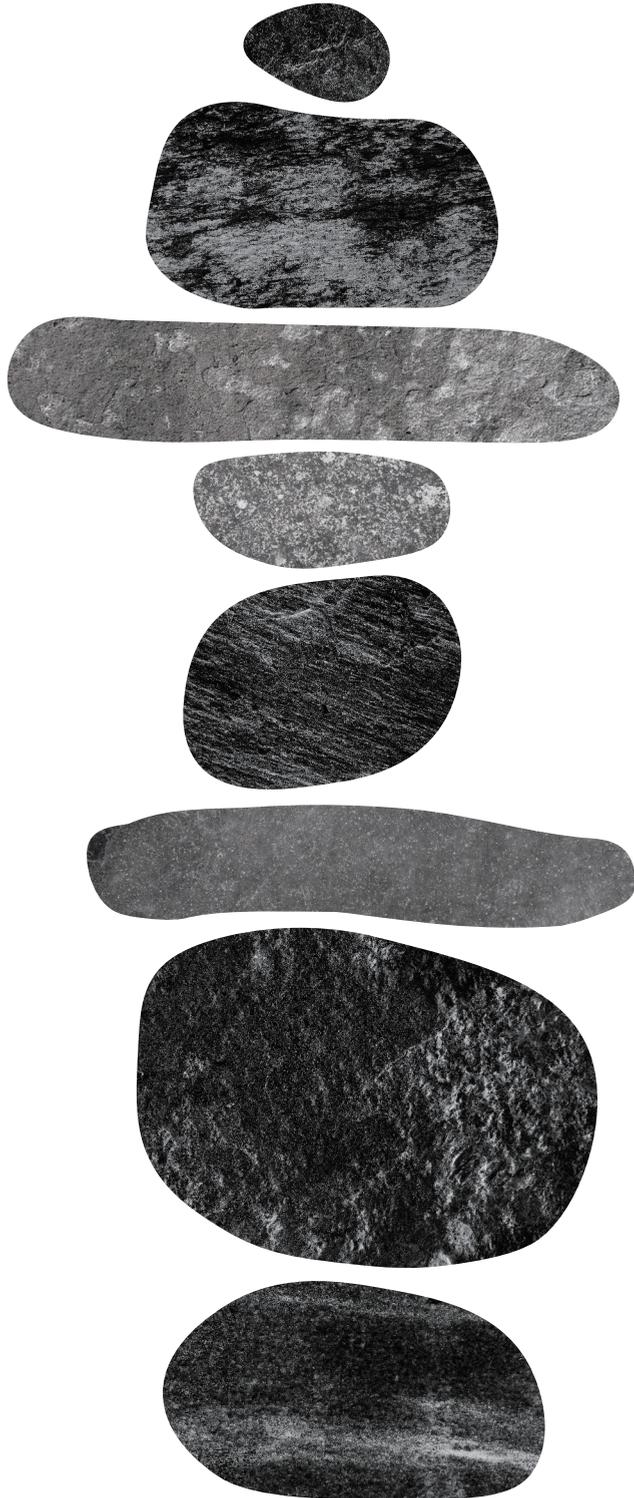


공감 그리고
2024 가을



VOL. 54

그 습(習)은 인생을 살아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자그마한 모래알 같은 지식에 불과할 뿐이다

板殿

險絶

學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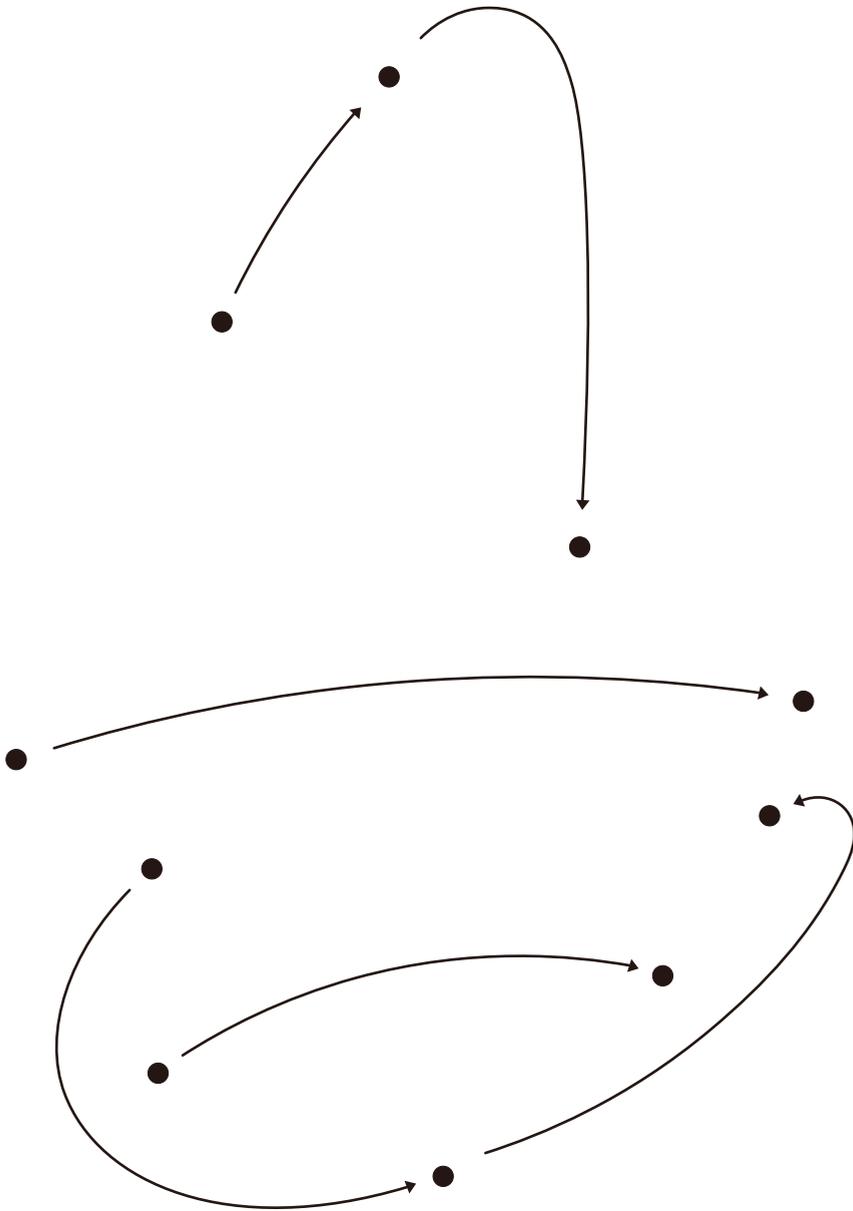
知識

書藝

平正

無智

本性



COVER ILLUSTRATION, 박보은

익숙한 '습'을 따라가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자리 잡은 '습'을 뒤로 한 채,
새로운 '습'의 길을 만들어나가보려 합니다.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길 바라며...





습(習)의 향연

지금 연구실 내 자리 앞에는 한 제자가 열심히 학이시습(學而時習)을 실천하고 있다. 학이시습이란 『논어』 제1장에 나오는 문장 중 한 구절로써 '배우고 그것을 무시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말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학습(學習)'은 '학이시습'의 줄임말이다. 그는 대학을 마치고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중 틈틈이 서예를 익히고 있다. 열심히 법첩(法帖)을 보고 서예(書藝)를 학습하며 본인만의 것으로 체득(體得)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서예는 크게 세 가지로 공부의 단계를 나눌 수 있는데 평정(平正) - 험절(險絶) - 평정이다. 처음의 평정은 아무것도 모를 때의 순수함 그 자체를 말한다. 즉 무지(無智)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학습을 통해 조금씩 몸에 체득되고 자신감이 붙을 때쯤 험절의 시기가 나타난다. 이 시기는 인간으로 말하자면 사춘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평정을 통하여 다져놓은 체득된 습(習)을 가지고 오만 잔기술을 부리는 시기이다. 이 시기가 한동안 지속되는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마지막 평정의 단계인 진정한 본성(本性)의 날갯짓을 하지 못한다. 그 예로 강남 봉은사에 가면 추사 김정희 선생이 남긴 판전(板殿)이라는 현판이 있다. 작고하기 사흘 전에 쓴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리 봐도 잘 썼다는 느낌은 받기 어렵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어리숙한 모습에 끌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멍하니 감상하게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평정과 험절의 시기를 부단히 견디어 내어 끝끝내 체득되어 있는 각각의 습을 버린 온전한 본성의 날갯짓이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인간은 습대로 살다가 죽기 마련이다. 습대로 살면 참 편하다. 그게 좋은 습이든 나쁜 습이든 몸에 체득되어 자리 잡은 순간 좋고 나쁨의 구분조차 되지 않는 것이 습의 치명적인 매력이다. 누구나 유년 시절부터 수없는 학습을 통해 습을 쌓아왔다. 그러나 그 습은 인생을 살아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자그마한 모래알 같은 지식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는 그동안 지식을 쌓는 습에 온전히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지혜의 습을 쌓는데 집중해야 할 때이다. 인생은 지식(知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지혜의 습을 통해 내면에 숨어서 보이지 않는 진정한 나를 찾아야만 습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부단한 학습을 통해 습을 쌓고 또 습을 버려야 하는 이유이다. 아! 오늘 참 습(濕)하다.

도홍 김상지

부산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내고 익산, 양산, 경주를 거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2019년 제38회 대한민국미술대전(국전)에서 서예부문 역대 최연소 대상을 수상했으며 현재는 사랑하는 최순이의 하나뿐인 남편으로 부산과 경주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도홍 김상지 <습의 함연> 2024

엽

습(習)의 향연	04
도홍 김상지	

시선

저기 저 설원 위에 선처럼 선 채로	08
오성은	
‘사적인 것(private)’을 ‘공적인 것(public)’으로 만드는	12
출판(publication)이라는 실천	
장현정	
한국 전통음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16
김지윤	

시절과 공간

부산시조의 발자취와 모습	20
주강식	
고독이란 있을 수 없었던, 낭만의 그곳	24
김 정	

사람과 사람들

완벽을 향한 움직임과 불완전함에 깃든 아름다움	32
경희댄스시어터 대표·안무가 박재현 오범택	
한국어와 한글 서예	38
조은하	

지금_부산문화재단 15주년

베를린 감각 단상	43
양나영	
건강한 예술이 탄생하는 공간에서	46
박정윤	
여전히 '우리 회사', 부산문화재단	50
하영문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54
박재현	
함께, 기을	56

너머

더위 다음 추위	58
김지훈	

저기 저 설원 위에 선처럼 선 채로

글. 오성은

사는 건 자국을 남기는 일이라고 시인이 내게 말했을 때 나는 소주를 삼키고 있었다. 더는 그게 달지 않았다. 글이 마음 자국이라고 우린 취했지만 더 취하고 싶어 했고 끝까지 서로를 말리지 못했다. 젓가락이 휘어졌고 보도블록은 일렁였고 또 뭐가 있었지, 나는 부끄러웠다. 글을 쓴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싶었다. 나는 왜 마음이 다치면 시인을 찾는 건가. 밤은 여태 캄캄해 아침이 오길 기다리는 동안 이젠 무얼 써야 좋을까 헛숨만 쉬었다.

시인이 가고 나면 나는 다시 아픈 몸이 된다.

글씨를 다시 배워볼까 고심해 본 건 단지 어떤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악필이라는 말은 수도 없이 들었고 그게 또 개성이라며 나를 달래보던 시절도 저만치 멀어졌다. 컴퓨터로 글을 쓰고,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보는 세상에서 하필이면 왜 글씨에 대한 갈증이 생겨난 걸까.

그러던 중에 만난 사람이 도홍 김상지이다. 부산에서 나고 자란 그는 출타 후 고향으로 돌아와 서예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영광도서 건너편에 자리한 서예원으로 직접 찾아갔을 때 마침 그는 수업을 진행하는 중이었고, 그건 그의 일상을 엿보는 일처럼 흥미로웠다. 그는 나이 많은 제자들의 훈장님이 되어 종이 앞에 선 자세와 붓이 흘러가는 방향과 팔의 기울기와 먹의 흐름 같은 걸 이르고 있었다. 그를 만나러 온 목적을 뒤로 한 채 한지 앞에서 붓을 들고 있는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본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는 꾸밈이 없었고 맑았고 대차 보이기가까지 했다.

연배는 한참 아래인 듯한데 쓰는 말은 범상치가 않았다. 이를 방증하듯 작품은 힘차고 강렬했다. 허나 부드러웠다. 물음표였다가 느낌표였다. 물이었다가 불이었다. 하늘이었다, 바다였다, 노인이었다, 그러나 이내 아이로 보였다. 평평한 한지에 입체를 만들고 빛을 부리고 윤기를 내니 마치 코앞까지 뛰어오르는 싱싱한 송어로 보였다가도 돌연히 무너져내릴 것 같은 허방 같은 신비가 있었다.

“왼손으로 썼습니다. 오른손은 자꾸 배운 걸 기억하더라고요.”

그 순간 내가 떠올린 건 나와 동고동락하고 있는 연필 선인장이었다. 좋은 작가로 쑥쑥 크라고 5년 전 지인이 선물한 연필 선인장은 그때만 해도 시집 한 권보다 키가 작은 아담한 사이즈였다. 그러나 지금은 허리 정도 되는 키로 불쑥 자리났는데 그 모양이 범상치가 않다. 녀석은 내게 한순간에 옷자란 줄기가 어떤 세상을 펼치고 만들어가는지를 몸소 보여주었다. 그건 곧게 자란 수목형의 나무형태가 아닌 변종이자 변주이자 변화의 역동이었다. 녀석은 더는 연필의 곧은 형태가 아닌 연필 선인장이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를 노마드(nomad)라 일컬을 수 있다. 경계 없이 뿌리로 뒤영키고, 한곳에 정주하지 않으며, 틀 안에 갇히지 않으려는 새로운 발자국 말이다. 나는 내 방 한구석에서 들썩이며 자라나는 이 재즈 같은 식물에게서 자기만의 모습으로 살아가려 애쓰는 한 영혼을 발견한다. 우리는 그 같은 이들을 가리켜 시인이라 칭한다. 시인이다, 연필이 시인이다, 나무가 시인이다, 그가 시인이라.

그가 펼쳐낸 삶의 궤적은 무척 흥미로웠다. 그러나 묘하게도 서예원의 홍보 문구가 내겐 더 간절하게 다가왔다. 심신안정, 정서순화, 감성자극, 꿀잠보장, 자존감상승. 그 단어 단어 사이에는 숲이 있고, 바다가 있고, 초원이 있고, 옥조가 있다. 요가 있고, 베개가 있고, 방석이 있고, 팔걸이가 있다. 맨발도 좋고, 민낯도 괜찮아, 밤이면 어떨고, 낮이면 어찌랴, 하는 식. 나는 그의 이름을 꼭 쥐고 돌아왔다. 언젠가 그가 내 스승이 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는 서예가 나아 가야 할 길을 몸소 투쟁하는 중이었다. 나는 그의 레지스탕스적인 마음에 빠져 이 가을에 걸맞은 단어를 하나 내어놓길 기대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함께 ‘습’을 마련했다.

습은 관습이나 습관의 관성이겠으나 습지의 기운이 있고 능하기 위한 수련의 과정이겠으며 매운맛을 감추는 소리이기도 하겠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한 습은 붓을 거꾸로 세운 형상 그 자체다. 거꾸로 붓을 들어 먹이 손가락으로 떨어지고 흐르고 물들고 말라버리는 동안 나는 새로 온 가을을 마주하며 잠시 아프지 않을 것을 예감한다.

문득, 시인의 말에 수궁이 된다. 자국이다. 저기 저 설원 같은 한지 위에 선처럼 선 채로 자국을 남기는 그를 떠올려본다. 붓이 곧 사람이다. 한 사람이, 아니 두 사람이 흰 능선 위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걸어가고 있다.

오성은

소설가. 『라스팔마스는 없다』, 『되겠다는 마음』 등을 썼다. ohseongeun.com

WHO AM I



I'M WHO I AM

‘사적인 것(private)’을 ‘공적인 것(public)’으로 만드는 출판(publication)이라는 실천

장현정

작가, 출판인, 사회학자, 문화기획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한국 인디 1세대 뮤지션으로 활동하다 뒤늦게 사회학을 공부했고 박사 과정 마지막 학기인

2008년 11월에 출판사 ‘호밀밭’을 창업한 이후 지금까지 약 300여 종의 책을 세상에 내놓았다.

바야흐로 아무도 읽지 않는 시대다. 스마트폰만 켜면 보고 즐길 거리가 가득하니 굳이 책을 읽을 이유도 없어 보인다. 올해 4월 발표된 '2023 국민독서실태조사'를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의 독서율은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종이책을 기준으로 1년에 단 한 권이라도 책을 읽는 사람이 32.3%이니 통계대로라면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2명은 1년에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고 있다는 말이 된다. 게다가 이 수치는 10년 전 독서율 71.4%와 비교하면 무려 39.1%나 감소한 것이다. 전자책과 오디오북 등을 더한 종합 독서율을 봐도 43%에 그치니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 이상은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1년에 단 한 권도 읽지 않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아무도 안 읽는 시대에 과연 출판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1년에 단 한 권도 읽지 않는 절반 넘는 사람들보다는 그럼에도 기어코 읽는 사람들, 곳곳하게 책을 찾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사실 출판은 원래 전통적으로 소수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출판의 역사만 보더라도 누구나 글을 읽을 수 있게 되고 싼값에 책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지금도 독서를 위해서는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힐 여유가 필요해서 사회적 압박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젊은이들이 아니라면 교육 및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책도 많이 읽게 되는 독서 양극화가 여전하다. 그런 점에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안' 읽는다고 보거나 시간이나 경제적 여유가 없어 '못' 읽는다고 보는 게 더 합당할지도 모르겠다.

바쁜 와중에도 마음을 차분하게 정돈하고 책을 읽는 행위는, 지금 이대로 괜찮은지 현실에 의문을 제기하고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상상하는 자들의 몫이다. 기득권층이나 지배자들이 오랫동안 출판을 진흥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억압과 감시, 검열의 대상으로 삼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도 출판과 독서가 진흥의 대상이 된 것은 군사정권이 끝난 1993년 이후의 일이고 2002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출판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니 불과 3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과는 출판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랐다는 걸 알 수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출판은 본질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비밀, 기성 질서 바깥의 이야기, 다른 세계를 상상하게 하는 불온하고 위험한(?) 행위이다. 물론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상업 출판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며 사람들의 욕망에 편승해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의미에서 가치 있는 출판은

카프카의 유명한 말처럼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 같은 책”을 내놓는 일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런 책들을 읽는 소수의 인간들은 결국 언젠가 쓰게 된다. 내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독자는 미래의 저자”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하고, 더 근사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고, 더 품위 있는 존재가 되려는 욕망이 있는 한 출판은 계속될 것이다. 출판(publication)은 바로 그런 건강한 욕망을 ‘사적인(private)’ 차원에서 ‘공적인(public)’ 차원으로 끌어 올려주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한자에서 ‘출(出)’은 세상에 공개한다는 뜻을 품고 있고, 영어에서 출판을 의미하는 ‘publish’, ‘publication’ 같은 단어도 공적인 것을 의미하는 ‘public’에서 유래했다. “영어권에서 출판은 14세기 후반에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행위, 일반 대중에게 알리는 행위’를 뜻하는 고대 프랑스어와 라틴어 ‘퍼블리시옹’과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만드는 것, 공공 재무부에 대한 판결’을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한 명사 ‘퍼블리쿠스’에서 유래했다. 이후 ‘판매 또는 배포를 통해 대중에게 서면 또는 인쇄물을 발행하는 것’이라는 의미로는 1570년대에, 그렇게 발행되고 제공되는 것을 뜻하는 단어로는 1650년대부터 기록되기 시작했다.”(etymonline.com 참고)

한편 책을 읽지 않는 시대라지만 MZ세대나 시니어 등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독서 모임, 독립서점, 독립출판 등을 향한 관심과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역설적인 시기이기도 하다. 이전과 달리 누구나 블로그나 SNS 등 자기 매체를 소유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며 자기 이야기를 기록하고 축적하고 표현하려는 욕구가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일 것이다. 누구나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 거기 맞춰 출판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다. 학위가 있거나 등단했거나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인정받아야만 책을 쓰던 시대는 확실히 지난 것 같다. 문화 각 분야에서 인디(indie), 생비자(生費者, prosumer), DIY 등이 유행한 지도 오래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이라도 출판을 통하면 공적인 것이 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공적인 기록을 통해 학습하여 또 다른 공적인 기록을 생산해 후대에 남긴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인류의 지혜를 만나고 한자리에 앉아 온 세상을 만나볼 수 있는 이유다. 출판을 통해 기록되고 공유된 기록과 이야기들은 새로운 문화와 일상이 되고, 인류의 ‘습(習)’이 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지금 우리 시대를 잘 표현한 말도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인류에게는 구슬 자체가 부족했고 귀했으나 이제 구슬은 차고 넘치는 시대가 되었다. 관건은 어떻게 꿰 것인가다. 이제 구슬은 서 말 아니라 삼십 말, 아니 삼백 말도 넘는다. 이렇게 차고 넘치는 구슬을 어떻게 꿰 것인가. 어느 때보다 안목이 중요해졌다. 또 무언가를 더하는 능력보다 고르고 속아내는 능력, 다시 말해 비우는 능력이 훨씬 중요해진 시대이기도 하다. 이른바 ‘편집(編輯)’의 시대인 것이다. 말 그대로 ‘흠어져 있는 것들을 모으고 엮어내는’ 일로, 이 편집은 출판의 꽃이라고 불리는 출판의 핵심이기도 하다.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취할 것인가.

사람들은 종종 책 읽는 게 먹고사는 데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인문학이 무슨 쓸모가 있는지 묻곤 한다. 하지만 당장 이 글을 읽는 당신만 하더라도 기왕이면 함께 있을 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는가. 함께하는 지금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 눈치가 있고 맥락을 파악하는 힘이 있어 어떤 상황에서라도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는가. 굳이 어떤 쓸모가 있는지 증명할 일도 아니지만, 이런 질문 자체가 상겁기 그지없다.

도가(道家)에서는 인간에게 세 개의 단전이 있다고 말한다. 배꼽 아래, 복부와 심장, 그리고 뇌인데 이것은 그대로 건강, 재력 그리고 지적인 힘과 연결된다. 인간은 배꼽 아래 성적 매력을 비롯한 건강이 있어야 하고, 복부를 편안하게 해줄 만한 경제적 힘도 있어야겠지만 의미와 재미를 부여하고 이야기할 줄 아는 능력도 필수적이다. 그리고 사회에서 출판이 하는 역할도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지금보다 더 많이 나눌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는 남의 이야기, 특히 근대 이후 서구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왔고 국가 차원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 편향성이 심했다. 이는 곧바로 정신과 문화의 식민성으로 이어진다. 우리 지역의 이야기, 나와 이웃의 이야기가 더 많아져야 하고 그 이야기들이 사적(private)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모두의 것(public)으로 기록되고 전승될 수 있도록 더 아름답고 근사한 출판(publication) 행위들이 늘어나길 소망해 본다.

한국 전통음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김지윤 피리독주회 <보은지향> 국립국악원 우면당, 2014

김지윤

음악박사이자 경영학박사이다. 피리연주자, 기획자, 방송인,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예술에서 새로운 앎을 모색하는 노마드의 삶을 꿈꾸는 아티스트이다.

현재 21세기 전통음악의 한 측면은 전통에 바탕을 둔 현대적 재해석과 다양한 장르와의 융합적 수용을 통해 새로운 시대 흐름과 함께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중은 이러한 음악의 실험적 또는 과도기적 경향을 더 이상 낯설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만큼 음악에 대한 이해와 폭이 넓어졌다는 이야기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음악적 발전과 수용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국악사를 통해 엿볼 수 있다.

필자가 전공한 피리라는 악기는 서역 지역의 피리가 실크로드를 따라 고구려에 전해지며 토착화되고 향악화된 국악기다. 피리는 전통음악에서 주선율을 담당하며 1,500년을 걸쳐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다. 1,500년의 역사를 품은 피리는 오랜 역사 속에서 전통을 오롯이 지켜가는 가운데 그 바탕을 뿌리 삼아 시대에 따라 새로운 음악 사조가 생겨나 융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적 변화로 인한 단절의 위기도 맞으면서 변화를 거듭해왔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예술의 변화와 발전이 컸던 시기인 고구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거문고로 대표되는 당시 음악은 인근 국가인 한나라와의 교류로 문화를 비롯한 서역의 문명이 대륙을 통한 실크로드를 따라 동쪽으로 전해졌고, 당시 한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에 집결되었다.

이렇게 모인 독특한 각 민족의 음악은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다.

피리 역시 이 당시 서역에서 두루 통용되던 관악기로 고구려시대에 한반도로 전해진 서역 음악은 기존의 고구려음악 바탕 아래 향악화되었다. 7세기에는 수나라 궁중 연회에 중앙아시아 및 인도 등 주변국의 음악 사절단으로 고구려악이 초청될 만큼 고구려의 융성한 음악 문화로서 꽃피웠다.

이러한 고구려악은 이후 당나라의 '십부기'에도 포함되어 주변 나라와 교류할 만큼 높은 수준이었음을 '수서', '구당서' 등에 전하고 있다. 외래 문화를 수용하여 더욱 발전된 음악으로 정착시킨 고구려악이 우리나라 융합예술의 시초가 아닐까 한다.

이러한 고구려악은 7세기 무렵 일본의 음악에도 영향을 주어 일본 궁중음악인 가가쿠(雅樂)의 큰 축을 이루는 우방악인 고마가쿠(高麗樂)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그 음악의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필자는 전공 악기인 피리로 서울대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하면서 학기마다 아악, 정악, 민속악 독주회를 개최하고 3년간 18세기 선비들이 향유했던 성악 장르인 가곡 중 남창 가곡의 피리선율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필자가 연구했던 가곡은 18세기 실학자들이 신분 차이를 넘어 사대부, 중인, 악공들로 구성된 새로운 풍류방 문화를 이끌며 정악(正樂)이라 부르는 장르를 생겨나게 하는 동시에 조선 전기의 음악과는 다른 민간 주도의 새로운 음악 스타일을 꽃피게 하는 단초를 열었던 음악 장르다. 필자는 조선 후기 가곡의 반주 선율이 기악화되며 파생된 '자진한악'이라는 방대한 기악곡과 영산회상 중 '평조회상' 전곡을 담은 음반을 발매하였다. 학업을 하는 동안 전통에 충실한 연구와 연주를 해오며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대중과 소통하는 음악을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이때부터 하게 된 것 같다.

2013년 '소리연구회 소리 숲'이라는 음악 단체와 기획사 대표로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장르를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음향 회사인 돌비 본사에 초청 연주회를 하게 되었는데, 고심 끝에 바이올린 연주자와 궁중음악, 클래식 원곡 연주를 처음으로 시도했다. 바이올린 연주자는 궁중음악의 대금 선율을 연주하며 미분음의 미묘한 차이를 익히며 정통 국악 원곡 연주에 처음 도전했다. 클래식은 클래식으로 통한다고 했던가? 호흡이 점점 맞아가며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듯 연주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연주 후 돌비 인터뷰를 통해 공식 블로그에 연주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2015년에는 서울 M극장의 '바람의 합주' 공연에서 피리, 바이올린, 피아노 트리오 편성으로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연주를 비롯해 바이올린과 궁중음악 '수제천' 이중주, 바리톤과 '투우사의 노래', 드럼과 태평소 시나위의 원곡 연주를 시도하였다. 이 공연으로 그해 한국예술평론가협회의 심사위원 선정 특별 예술가상을 수상했다.

이후 현대무용 작품 '붉은 가면의 진실'의 음악감독으로 피리, 바이올린, 피아노 편성으로 생상스, 쇼팽, 슈베르트, 할보센 곡을 직접 연주하며 양악기와 국악기가 이루어 내는 절묘한 음색이라는 무용평론가의 평을 듣기도 했다. 이러한 클래식과 현대무용의 콜라보 작업은 계속되었고, 2017년에는 체코비르투오지 오케스트라와 협연으로 베토벤 '월광소나타', 비발디 '사계', '아리랑'을 현지에서 녹음하고 <피리, 클래식을 만나다>라는 음반을 발매했다. 국악기 연주자가 해외 현지 오케스트라와 클래식 원곡 연주는 아마 처음이었을 것이다. 이 음반의 장르 분류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던 기억이 난다. 불과 십 년 전만 해도 이러한 낯선 시도에 긍정적인 시선보다는 의아한 시선이 많았던 것을 생각해보면 지금은 다양한 장르의 콜라보 연주가 더 이상 연주자나 관객들에게도 낯설지 않게 된 것은 정말로 다행스럽고 기쁘다.

2019년도에 대구 수성아트피아에서 열린 '수성월드뮤직페스티벌'에 한국 아티스트로 초청되어 연주할 작품을 구상하면서 처음으로 DJ 프로듀서와 EDM장르를 콜라보하게 되었다. 한국인의 흥을 세계와 소통하고자 기층음악인 농악을 현대적으로 풀어내어 농악에서 유일한 선율악기인 태평소와 나머지 타악기 사물 역할은 디지털 사운드로 대체해 '괘지나칭칭', '아리랑' 등을 연주하며 신명 나는 판을 열었다. 이러한 DJ 프로듀서와의 작업으로 2020년 디지털 싱글 <ABAMAMA>, 2022년 <Till The Sunrise>를 해외레이블에 발매하였고 지금도 작업은 진행 중이다.

서양의 작곡 어법에서 전통음악의 색깔을 녹여내는 서양 작곡가와의 콜라보로 피리와 하프, 피리와 전자 음향, 피리와 클라리넷, 플루트 앙상블 등 새로운 창작곡 초연도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2018년부터 부산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BeFM 부산영어방송, TBN 부산교통방송, 부산 MBC 라디오 국악코너 진행을 통해 전통음악과 더불어 현재 다양하게 시도되는 새로운 국악곡을 청취자들에게 전하며 대중들과 소통하고 있다. 부산영어방송의 시보음악을 종묘제례악 태평소 선율로 제작하기도 했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 신문사 음악 필진으로 전통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지면을 통해 꾸준히 독자와 만나고 있다.

코로나 이후 더욱 다양한 예술의 융합 장르가 서로의 색깔은 지키며 양립하는 이러한 새로운 콘텐츠는 앞으로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는 예술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활용에 대해 더 깊은 학문적 연구를 하고 싶어 부산외국어대에서 경영학 공부를 시작하여 기업의 특성에 따른 예술 콘텐츠 활용이 고객물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올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예술 콘텐츠가 기업에 실무적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기 위한 아티스트와 기업 간의 상생 방안을 학문적으로 모색해 본 뜻깊은 시간이었고 실제적 활용은 나의 숙제라고 생각한다.

21세기 문화예술의 화두는 '융합'일 것이다. 지금도 기존 형식이나 장르를 탈피한 새로운 다원예술 작품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 전통음악 역시 다양한 장르와 만나 다양하게 음악적으로 변용되어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트렌드가 시간이 지나 고착화되고 지속되어 지금의 현시대 음악이 미래의 고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본다.



소리연구회 소리 숲 기획공연 <소리의 숲 길>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2016

주강식의 그때 그 시절

부산시조의 발자취와 모습

글·사진. 주강식



전국시조백일장 부산 중앙공원에서 조정 김상욱, 부산시조문학회장 주강식, 조계종 종정 성파스님, 1993

시조는 천년 가까운 세월 동안 민족문화의 주류를 이루며 금지탑을 쌓아오다 1900년대에 이르러서는 서구화와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 정책에 짓눌려 침잠을 면치 못하였지만 그래도 명맥은 이어왔다. 1930년대 전국의 시조 시인은 십여 명 정도였지만 부산 경남 지방에서는 몇몇 시조 시인이 시조에 불을 지폈다. 탁상수, 김기택, 장응두, 고두동, 김상옥, 서정봉, 이영도 등이 그렇다.

탁상수는 1900년 경남 통영 출생으로 한때 충무여고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으며 1925년 『조선문단』에 『파랑새』, 『눈물』로 등단했다. 1926년부터 1927년 사이에 20여 편의 시조를 발표했으며 통영과 부산을 오가며 문학 활동을 펼쳤다. 김기택은 동래고보에서 교사 생활을 하기도 했으며 1926년 『개벽』지에 시조 논문을 실었고 『참새』지에 쇠뿔(鐵山)란 호로 수십 편의 시조를 실었다. 장응두는 통영 출생으로 1970년 부산에서 살다가 범일동에서 사망하였다. 그는 부산문인협회 부지부장도 역임하였으며 자유시를 쓰며 두주를 불사했다고 한다. 1938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관란』이, 1940년 『문장』지에 『한야보』가 추천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조 활동을 시작했다. 고두동은 주로 부산에 살면서 통영 문인들과 교류하며 『참새』지에 참여했다. 김상옥은 통영 출생으로 통영과 부산에서 교편을 잡으며 중년 이후에는 서울에 살면서 작품 활동을 하였다. 그가 16살에 쓴 시조 『봉선화는』는 1939년 『문장』지에 추천되고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오랫동안 실렸다. 1941년 『낙엽』이 동아일보에 당선되기도 하였다. 그는 시, 시조를 쓰며 글씨, 그림, 전각, 도자기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서정봉은 부산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며 1952년 동시집 『반딧불』, 1953년 시조집 『소정시초』, 1969년에 『여백 앞에서』를 출간하였다. 그는 일제에 항거하다 2년간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이영도는 경북 청도 출생으로 1945년 『죽순』, 『제야』를 발표하고 1954년 시조집 『청저집』, 1968년 『오누이 시조집』을 출간하였다. 여기서 오누이는 그와 이호우 시조 시인이다. 그는 통영에서 교사로 근무하다 부산으로 옮겨 활동하였다. 청마 유치환과의 로망스와 그 일에 관한 글은 많은 이의 입에서 화자 되었다. 일제와 6.25 동안 속에서도 이들은 부산, 경남 지역에서 시조 작품 활동에 정진하며 향긋한 시조의 꽃을 피워올렸다.

위에 언급한 사항이 부산 시조의 근간을 이뤘다면 현대로 이어지는 발전은 살매 김태홍 시인의 업적을 빼놓을 수 없다. 김태홍 시인은 자유시를 쓰면서 민족시로서의 시조의 가치와 전통성을 높이 인식하고 부산시교육청 장학관으로 근무하면서 시조짓기 운동을 펼쳤다. 부산시교육청 산하의 교사들에게 시조짓기 작품을 공모하여 시상하고 그 작품을 『돌림그네』라는 작품집으로 엮어냈다. 수상자에게겐 우수 3점, 우량 2점, 가작 1점의 승진 가산점도 붙였다. 그때 교감 승진을 하는 데에는 0.1의 차이가 변수를 만들기도 하였다. 1점은 큰 변수였다.

필자도 그때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응모하였더니 우수 2회, 우량 3회, 가작 2회를 수상했다. 친구들이 대필을 요구하기까지도 했다.

그때 우수상을 받은 사람들이 시조 동인 <법씨>를 결성했다. 필자는 우수상 등을 받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창립 멤버로는 동참하지 못하고 2년여 지나 입회했다. 신입 회원으로는 처음이었다. 창립 회원 8명에서 회원은 모두 9명이 되었다. 내가 입회하고 나서 2~3년 지난 사이에 양원식, 백승수 시인이 가입했고 회원은 모두 11명이 되었다. 그때 신입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기존 회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했으며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허락되지 않았다. <법씨> 동인들은 한 달에 회비 1,000원을 내어 매달 식사 모임을 갖고 국밥에 소주 한잔을 하며 문학 활동과 우의를 다지며 가족 나들이도 하였다. <법씨> 회원들은 1980년부터 매월 『부산시조』라는 제호의 회보를 발행하여 전국의 시조 시인과 관계 요리에 배포했다. 한 번에 500부 이상 발행하여 우송했는데 그때는 컴퓨터는커녕 타자기도 드물어 손글씨로 회보를 작성하여 출판사에 의뢰하여 인쇄했다. 봉투와 주소, 우편 번호까지 일일이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서 하나하나 우표를 붙여 발송했다. 원고 청탁 관계, 전화비며 교통비, 식사까지 담당자가 흔쾌히 부담했다.

시조 연수회, 시조 낭송회, 시화전도 열었다. 모두 시조를 쓰는 것, 시조 활동을 보람으로 여기며 성의를 다 하였다. 전국 시조 시인들에게 회보를 보내면 격려의 편지와 엽서가 많이 왔다. 필자가 가야동에 살 때 <법씨> 총무 일을 맡았는데 전국에서 한 달에 수십 통의 우편물이 오고 가니까 정보기관에서 요시찰 인물로 주시하기도 하였다. 이때 이은상, 이태극, 김상옥, 정완영, 이우중, 이형기 등의 많은 문인의 격려가 있었다.

<법씨>의 활동 영역이 크게 넓혀진 것은 성파시조문학상의 제정과 성파시조백일장을 개설하면서였다. 부산일보 이진두 기자의 소개로 우리 회원이 그때 서운암 주지이자 현재 대한조계종 중흥이신 성파스님을 찾아가서 지원을 부탁 드렸더니 흔쾌히 응해주셔서 1984년 가을부터 제1회 성파시조문학상을 부산일보 강당에서 시상했다. 지난해까지 38회 되도록 매년 실시했다. 성파시조백일장은 1985년부터 매년 해왔다. 성파스님은 시조뿐 아니라 도자기, 그림, 서예, 다도, 천연 염색, 한지 만들기 등 많은 분야의 문화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직접 참여도 하며 도움을 주고 있다. 주로 전통문화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다.

<법씨> 동인 활동은 또 하나 애깃거리가 있다. 화전 시화회다. 1987년 진달래 꽃맞이로 통도사 계곡에서 진달래꽃을 따서 화전을 붙여 먹는 놀이를 하다가 1989년부터 부산 여류 시조 시인도

동참하였다. 1993년부터 부산여류시조시인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다. 시조 연수는 주로 교사들을 대상으로 1986년부터 <법씨>가 시작하여 오다 시조시인협회에서 이어오고 있다.

부산시조의 활동 영역을 크게 넓힌 것이 또 있다. 부산시조시인협회의 발족이다. 기존의 동인 <법씨>와 부산여류시조시인, 여타 부산 시조시인들을 합해 1984년 부산시조시인협회를 만들었다. 전 부산일보 사장이셨던 김상훈 시인이 초대 부산시조시인협회장을 맡아 큰 활력을 불러 일으켰다. 전국시조 단체에서 부산시조가 단연 두드러지게 단합하고 활력을 보였다. 성파스님, 김상훈 시인의 부산시조 발전에 기여한 노력은 잊힐 수 없는 공덕이다.

시조는 우리 전통문화의 금자탑이고 미래의 문학으로서도 빠질 수 없는 전통과 문학적 요소를 지닌 문학 장르이다. 시조 문학의 세계화, 시조 문학의 굳건한 발전을 위해 필자는 보람과 소명감을 절실히 느끼며 나에게 허여된 시간과 여력을 다하고 싶다.

주강식

1982년 시조문학 천료, 법씨 동인으로서 부산문인협회 자문위원, 부산교육대학교 국어과 명예교수를 지냈다.

성파시조문학상, 부산문학 대상을 수상했으며 펴낸 시조집으로 『태산을 넘는 파도』, 『활주로』, 『황금물 넘어』, 『우듬지』 등이 있다.

고독이란 있을 수 없었던, 낭만의 그곳

글. 김정

사진. 박보은

“이거 기가 막힌 작품이잖아. 작가들은 자기 나름대로 작품이 다 훌륭해.
그렇지만 이 사람은 부산의 이런 큰 행사를 알리는 역할을 하잖아. 이게 중요하잖아.
자기 세계에서는 최고인지는 모르지만 대중적이지는 않잖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부산에서 잘 알려주지 않아.
돈도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

- 그곳의 여섯 번째 여사장님

“소박하게 모였다. 좋은 손님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낭만이 있었다. 모두가 노래를 불렀다.
이름도 다 알아봤다. 연극하는 사람들도 많이 왔고, 다 돌아가셨다. 그때는 참 좋았지.”

- 서양화가 오정민 화백님

“나는 경영을 했지만 대가들과 토론을 벌이며 싸웠던 곳이었어요. 재밌었다.
기대가 되는 곳이었다. 소박한 곳이었지만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를 만날 수 있었고,
서양화가, 한국화가, 서예가, 음악가, 연극인 등등 다방면의 예술가들을 만나면서
인생의 한 계단이 업그레이드되는 곳이었다. 예술에 대한 안목을 넓혔다.
그곳에서 젊음이 성숙해져 갔다.”

- 경성대학교 경영학부 정봉길 명예교수님

추억.. 향기.. Story..

계림

T.253-1329



이등스낵

이등스낵

6-3

계림

마걸리

이등스낵

이등스낵



부산은 초고령화 도시 상위권에 속하는 곳이다. 지역소멸위험 기초지자체가 몇 군데나 있다. 빈집이 많고 청년들은 유출된다고 하고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많은 도시가 되었다. 어느 영화에서 부산을 상징하는 메타포가 나왔는데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었다. 노인은 본인만의, 1인의, 공간에서 고독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나는 아빠와 살고 있는, 어쩌다 보니 캥거루족이 되어 있는데, 종종 생각하길, 아빠는 외로운 1인 가족, 노인으로 살고 계시지 않은가 싶다. 회사에서 일하고 먹고, 집 밖에서 운동하고 취미 생활하고 주말이라고 특별히 다르지 않으니, 같이 살고 있지만 따로 살고 있달까? 이 정도면 하숙생 1명 거둔 1인 가족이지 않을까. 어쨌든 우리는 함께 나이 들어가며 부산의 초고령화에 기여하고 있을 수도 있다. 고독, 외로움이라는 지역소멸 위험지역의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을 수도 있다. 내가 사는 곳은 해운대구인데 초고령화로 유명한(?) 원도심, 중구는 오죽할까. 초고령화를 사회문제로 인식하지 않을 수는 없을까? 나이 들이 뭐 어때서? 혼자 사는 게 뭐 어때서? 반박하고 싶지만.

원도심, 중앙동에는 40대 초반에 들어선 내가 선배들로부터 이따금 전해 들었던 곳들이 있다. 다락방의 고주경업 선생님, 양산박의 고이상개 선생님. 이분들의 작고 소식을 통해 접했던 공간들이다. 그 사이에 '계림'이 있다. 계림? 중국 계림을 말하나? 지난 40~50년의 세월 동안 여섯 번째 사장님이 되신, 한근이가 잘 알아, 라며 답하기를 피하신 여사장님도 부산근대사료연구소 김한근 소장님도 왜 계림인지 모르셨다. 이름의 의미는 몰라도 두 분의 공통된 이야기에 따르면, 이곳은 예술가들이 모이는 장소 중 하나였다.

특히 화백이라 불리는 분들의 집합소. 오다가다 네 번쯤 만나면 명함을 주고받거나 통성명을 한다. 다섯 번째가 되면 친구가 되어 있다. 여사장님이 첫 만남에 명함 주고받지 않았냐고 거드신다. 옆 테이블에 손님 세 분이 오셨다. 또 그 옆 테이블에 어르신 세 분이 오셨다. 작은 공간, 계림은 손님들의 이야기로 넘쳐난다. 행사장에서 챙겨온 빵과 케이크를 나눠드렸다. 김소장님의 부산 근현대사 한 장면에 대해 수업(?)을 들던 중 여사장님께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안주 한 접시를 내어주셨다. 빵과 케이크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옆 테이블에서 보내주신 음식이었다. 그리고 첫 만남에 우리는 명함을 주고받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3년 전 부산으로 내려와 송도에 살고 있다는 사진 작가님과 1년 만에 만나러 온 친구분들. 사진 작업, 인생 이야기부터 “우리가 남이가”라는 대사로 유명해진 정치사의 한 장면에 대한 의견 충돌까지. 정치사에 대한 견해는 비록 다를지언정, 우리는 각자의 현재진행형 삶을 공유했다. 그리고 이루어질는지 알 수 없는 1년 뒤의 만남을 기약하며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다.

우리가 나누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정(情)? 정을 나누었다는 것은 고독, 외로움과는 상반되는 것 아닌가?

원도심, 중앙동에는 어째서 예술인들이 많이 모였나요? 나는 예전부터 궁금했던 질문을 했다. 시청이 있었기 때문인가요? 시청도 시청이지만 수십 년 전에는 이 지역에 주요 언론사들이 자리했었다. 시청 공무원도 지역 언론사 기자들도, 특히 문화부, 문화예술계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문화예술인들도 공공기관, 언론사를 통해 일자리를 얻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중앙동에는 예술인들이 모이는 공간들이 생겼다. 계림, 양산박, 다락방, 강나루 등등 대략 7곳 이상이었던 듯하다. 이상하게도 이곳들은 예술장르별 특성까지 생겼던 듯하다. 계림은 그림, 양산박은 문학 같은.

지금의 여사장님에게 물었다. 이곳을 찾으시는 분들 중에 가장 아끼는 예술가가 있다면요? 최순대! 대중들이 몰라서 너무 안타까워.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나온 이름이었다. 그리고 입구에 붙어 있는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포스터를 손으로 가리키셨다.

최순대 미술 감독님은 유명인이 아니셨던가? 하는 의아함을 품고 있는데 입구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 나누시던 어르신들께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순대야, 건강해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자.

글을 쓰기로 결정했을 때, 오정민 화백님과의 공동취재가 어떻냐는 김소장님의 제안이 있었다. 계름, 부담감 등으로 원고 마감 3일 전에 계림을 찾았기에 결국 연락을 드려보지 못했는데 다른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자리를 파하려던 순간! 오화백님이 오셨다. 여사장님께서 날이 너무 더워서 그런지 오화백님도 최근엔 오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동행이 있으셨기에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인사를 드릴 수 있었다. 놀라운 순간.



원고 마감일 오후 2시 30분. 남포지구대 맞은 편에 위치한 작은 카페의 야외 테이블에서 오화백님, 정봉길 교수님과 시간여행이 시작되었다. '부산을가꾸는모임'의 서세욱 회장님께서 닭 계(鷄), 수풀 림(林). 사람들이 많이 모이라는 뜻으로 계림이라 이름 지어 주셨다고 한다. 저명인사들과 예술가들의 사랑을 받았던 미모와 지성의 여사장님들, 극단 레파토리 시스템을 열성적으로 지원하신 강기홍 선생님, 부산 문화 부흥에 기여하신 국제신문 고 김규태 기자님과 부산일보 고 박정인 기자님, 백성도 교수님(서양화가) 등등 예술가를 사랑했던 사람들. 오영재(1923~1999), 천재동(1915~2007), 임호(1918~1974), 김일랑(1934~2020), 변창현(1930~2010, 서예가), 주정이(1944~), 정재운(~2016), 임명수(1940~2019, 시인), 강인주(1948~), 추연근(1924~2013), 신창호(1928~2003), 안기태(1942~)... 많이들 돌아가셨다. 지금 연세가 93세지, 오늘 저녁에 전시 오픈한다, 이제는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 하시며 떠올려 주신 계림의 예술가들.

중구? 지역소멸 위험지구, 초고령화 지역이라고 인구통계지수가 보여준다지만 고독이 있을 수 없는 공간이 있기에 외로운 동네가 아닐지도 모른다. 1인 가족 같지만 결국 2인 가족이라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친근하게 반말하며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여사장님과 소장님처럼. 후배 작가의 건강을 염려하는 백발의 선배들처럼. 4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한 우정을 쌓고 있는, 같은 원도심 동네 주민이기도 한 오화백님과 정교수님처럼.

당신에게도 고독을 잊게 해주는 낭만적인 공간이, 사랑하는 예술가가 있나요?

김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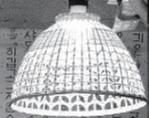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에서 일하는 중. 외롭게 살고 싶지 않아서 나를 치열하게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다.

그 방향이 옳은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말인데, 함께 막걸리 한잔하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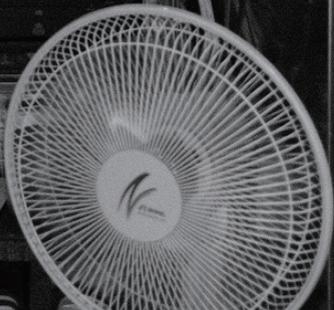


2층 20호

-主人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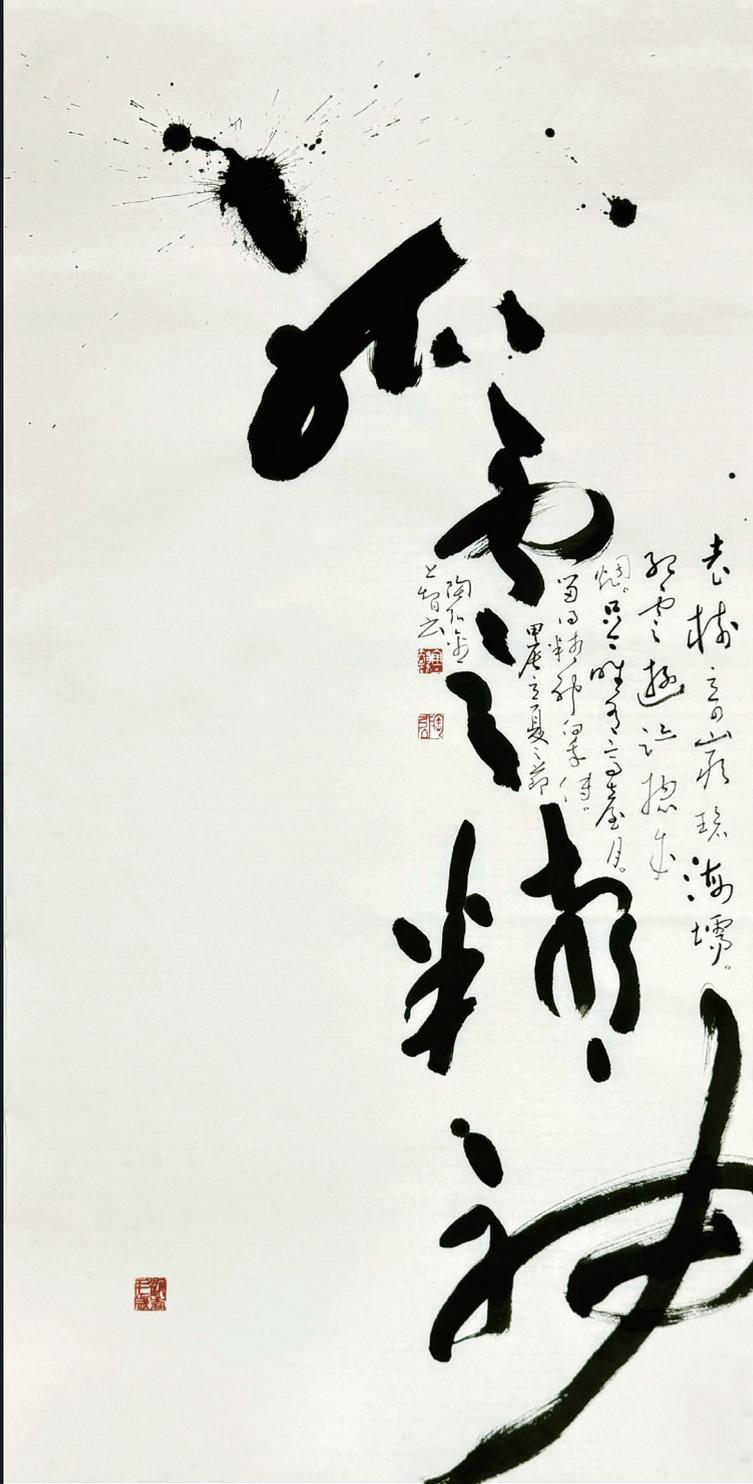


Vertical columns of Korean text covering the wall, likely a notice or advertisement.



키친
키친

일단
청년
시절



도홍 김상지 <고운 최치원 서생 사> 2024

완벽을 향한 움직임과 불완전함에 깃든 아름다움

경희댄스시어터 대표·안무가 박재현

움직임이야말로 가장 본능적인 예술의 언어다. 말로는 닿을 수 없는 깊고 진솔한 감정을 담아내는 세계. 그 안에서 박재현 안무가는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서사를 몸의 언어로 풀어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감정의 흐름을 섬세하게 포착해 낸다. 움직임은 때론 불완전함 속에서 더욱 빛나고, 진정한 아름다움은 완벽이 아닌 그 너머의 진솔함에서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



글. 오범택

사진·영상. 유돈희



인터뷰 동영상



**안무가님은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가로 오랜 시간 활동해 오셨습니다.
부산을 주 활동 무대로 삼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재현 불과 10년 전만 해도 부산은 문화적으로, 특히 댄스계를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들이 폐교되고 인프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 보니 무용 인구가 점차 줄어들었죠. 많은 예술가들은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었고요. 저 역시 어릴 때부터 외국이나 서울 같은 여러 지역에서 활동해 왔지만, 결국엔 부산으로 돌아왔어요. 고향이라는 점에서 부산이 심적으로 가장 잘 맞는 곳이라는 느껴졌거든요. 물론 활동 범위가 예전만큼 넓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역의 무용수들이 함께 모여서 노력한다면 충분히 새로운 문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지역이 어디든 무대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저에게는 최고의 무대입니다.

**다양한 팀에서 활동하시다가, ‘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경희댄스시어터를 창단하게 되셨다고요?**

재현 팀에서 활동하면서 늘 ‘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6년에 경희댄스시어터를 창단하게 됐죠. 저는 주로 제 주변 이야기들을 다루는 편인데, 어머니 이야기부터 친구들, 사물, 심지어 애완동물까지도 작품의 소재가 될 수 있어요. 상상력이 풍부하지 않아서 허구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건 저한테는 조금 어려운 일이라구요. 직접 보고 느낀 것들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자연스럽게 느껴졌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제가 사회적으로 겪게 될 일들이나 당면할 주제들을 다루면서 작업할 것 같아요. 가장 잘 아는 것들로 작업하는 방식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지 않을까요.

**<우물가 살인사건-그곳엔 사람이 산다> 작품도 회동수원지를 걷다가, 수물 마을의
역사적 배경을 떠올리며 구상하신 것과 일맥상통한 부분 같아요. 지금까지 이러한 작업 방식으로
수많은 공연을 하셨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을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재현 <인어공주를 위하여-편견>이라는 작품이에요. 저는 순정만화를 정말 좋아하는데, 특히 이미라 작가의 <인어공주를 위하여>라는 작품에서 큰 영감을 받아 작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작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만화에서 다루고 있는 인간의 아픔에 깊이 공감했죠. 인어공주는 하체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름답게 비치는 존재이면서 마지막에 물거품처럼 사라지잖아요. <인어공주를 위하여-편견>에서도 신체적으로나 심적으로 불편함을 겪는 특수 계층의 이야기를 담으면서 동화처럼 잔인하면서도 아름답게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했죠. 이 작품을 계기로 저의 작업들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잔혹함과 고통을 다루면서도, 결국엔 해피엔딩으로 메시지를 담아 내는 것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이 되었죠. 지금도 그 부분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신작 <수선되는 밤>이 더욱 기대되는데요. 작품 소개 부탁드립니다.

재현 <수선되는 밤>은 국립현대무용단이 지역 극장과 협력해 창작자를 발굴하고 현대무용 레퍼토리를 개발하는 '코레오 커넥션'에 선정된 작품입니다. 부산·경남권에서만 12팀이 지원할 만큼 경쟁이 치열했는데, 그 가운데 <수선되는 밤>이 선정되어 정말 기뻐요. 참여한 안무가들 모두 훌륭한 분들이라, 누가 뽑혔더라도 당연하게 여겼을 거예요.
<수선되는 밤>에서 '수선(垂線)'은 직선이나 평면과 직각을 이루는 선을 의미해요. 수선은 완벽한 선이지만,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더 이상 수선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선을 유토피아에 비유했어요. 우리가 꿈꾸는 완벽한 삶, 이상적인 삶에 가까운 모습이죠. 작품 안에서도 난민들이 유토피아를 향해 나아가지만, 결국 그 앞에 도달하지 못해요. 인간의 이기심과 폭력이 그 길을 막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다투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요소들이 오히려 우리가 바라는 유토피아를 방해한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완벽한 삶'이란 존재하지 않다는 걸 말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완벽함은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고 보는 거죠. 사실 완벽이라는 정의도 누군가가 정한 기준일 뿐이잖아요. 굳이 비교해서 불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듯, 오히려 내가 처한 상황 자체가 완벽할 수도 있듯 말이죠.

안무가님의 작업 방식도 항상 그 완벽함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선되는 밤>을 통해 느낀 점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재현 저는 작업할 때 약간 편집증적인 면이 있어요. 예전에는 1분 1초도 허투루 넘기지 않고, 작품의 모든 부분에서 완벽함을 추구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리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결과물에도 허점이 보이더라고요. 이번 <수선되는 밤>에서는 그런 완벽함에 대한 집착을 조금 내려놓고, 무용수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시한 대로만 움직이는 것보다, 무용수 스스로가 선택하고 해석해서 춤을 출 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제는 욕심을 내려놓고, 무용수를 믿고 맡기고 있죠. 비록 어떠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수선되는 밤>은 지금까지 작업한 작품 중 가장 근사한 작품이 될 것 같아요.

안무를 구성할 때 작은 감정이나 사물에 집중하신다고 들었어요.

섬세한 부분을 무대에서 구현해 내기 위해 디렉팅할 때 가장 신경 쓰는 점은 무엇인가요?

재현 디렉팅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무용수들이 무대 위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예요. 물론 무대 구성, 조명, 의상도 중요하지만, 결국 춤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작품을 만들 때는 먼저 주제를 공유합니다. 무용수들이 리서치를 통해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갖고 있는지 정리해 오면,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구성해요. 예를 들어, 10명의 무용수에게 질문을 던지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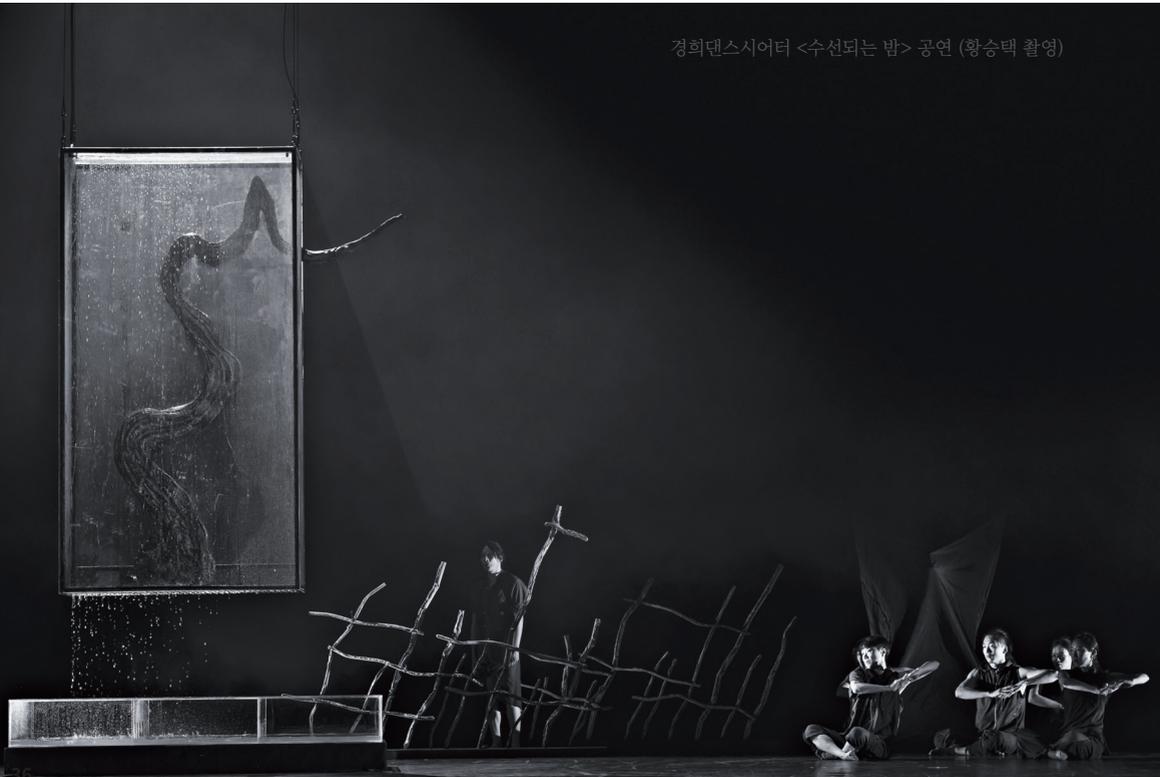
각기 다른 10개, 아니 100개 이상의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춤으로 표현될 감정과 움직임이 만들어집니다. 몇 차례에 걸쳐 영상으로 촬영하고 분석하면서, 가장 좋은 부분을 골라내 안무를 완성해 나가죠. 최종적으로는 제 생각과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함께 섞어서 작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큰 그림을 그리며 작업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작은 감정이나 사물, 틈새에 있는 요소들까지 세밀하게 들여다보려 노력해요. 나이가 들면서 섬세한 감정들이 더 잘 보이기도 하고요. 물론 너무 깊이 파고들면 힘들 때도 있지만, 세밀한 부분을 느끼고 이를 표현하는 재미가 아주 큼니다.

저마다의 소통을 거쳐 우리만의 표현으로 드러내는 작업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매너리즘이 오는 순간도 있으실 텐데요,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재현 솔직히 말해서, 항상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작품을 할 때마다 고비를 넘기고 또다시 시작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죠. 그런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도태되거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 덕분에 조금씩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작업 과정에서도 늘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니, '이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작품을 중간에 다시 보고,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죠. 완벽을 목표로 하다가도 막상 돌이켜보면 허점이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예(YES)'나 '아니오(NO)'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와요. 때로는 고집을 밀고 나가야 할 때도 있지만, 모든 게 항상 옳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죠.

경희댄스시어터 <수선되는 밤> 공연 (황승택 촬영)



작품을 다시 돌아보며 ‘이게 정말 맞는 건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긍정과 부정을 명확히 구분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때로는 가혹할 정도로 자신을 점검하고, 때로는 자신과 타협하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셈이죠.

**그 과정을 거닐고 있을 지역 안무가들에게,
앞서 걸어가고 있는 선배 안무가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재현 특별히 전할 메시지는 없어요. 고민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거니까요(웃음).
다만, 꼭 말하고 싶은 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쪽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길이 맞지 않다고 느끼면 몇 번이고 돌아보고, 잠시 그만뒀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죠.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힘들게 할 필요도 없어요. 무용을 선택했을 때는 행복해야 하잖아요. 만약 춤이 고통스럽다면 굳이 계속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잠시 멈췄을 때, 그럼에도 무용이 가장 행복하다면 그때 다시 선택하면 되는 거죠. 당장 어떠한 조건보다는, 각자 알아서 자신의 길을 찾으면 좋겠어요.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디든 그 지점은 꼭 행복이었으면 하고요.

**작품을 완성하는 최종 파트너, 바로 ‘관객’인데요. 공연을 보고 난 후,
관객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돌아갔으면 하나요?**

재현 한번쯤 ‘이게 뭐였지?’ 하고 생각해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길을 건다가 혹은 잠들기 전, 문득 한 번이라도 작품을 떠올린다면, 관객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문 하나만 일으켰다면 더할 나위 없겠어요.
<수선되는 밤>은 난민 문제를 다루는 작품입니다. 처음엔 저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작업을 하면서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집이 없는 사람 보고 난민이라고 하듯, 우리도 떠돌아다니는 난민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만 있을 뿐, 어찌면 모든 사람이 겪고 있을 그 마음을 담백하게 담아보았습니다. 다음 작품에서도 인간의 아픔이나 곤상 같은 주제를 더 깊이 탐구하고, 관객들에게 새롭고 솔직하게 다가가고 싶어요.

박재현

경희댄스시어터 대표.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고 언제나 부산에서 활동하고 싶은, 예술가이고 싶은 안무가.

<노년의 기록>, <금홍아 금홍아>로 부산무용제 대상 등 다양한 작품을 수상했으며

올해 국립현대무용단 ‘코레오 커넥션’ 프로젝트에 <수선되는 밤>이 선정되었다.

한국어와 한글 서예

글·사진. 조은하



빌바오 거리에 있는 한국어 학원

2000년대 초반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7년쯤 살다 보니 지루했다.
그래서 2010년 12월, 다니던 직장, 살던 집을 모두 정리했다. 생활에 변화를 주고 싶다는 게 핑계였지만, 그간 막연하게 꿈꾸던 일을 해 버리기로 작정한 게 이유였다.
직장을 다니며 틈틈이 스페인어도 배웠고, 한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은행 잔고가 있었다.
그래서 바로 '유럽 도시에서 살아 보기'에 나섰다. 시작은 1년 과정의 어학 연수였다.
그러다 여러 우연이 쌓이고, 이곳에서 살 운명이었는지 11년 째 여기에 머물고 있다.

현재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의 활기차고 아름다운 소도시 빌바오에서 한국어와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다. 처음은 일본어 수업이 전부였다. 바스크 사회에 일본 문화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이미 깊숙이 뿌리 내려 있어, 일본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열기는 상당했다.
반면, 2015년 당시 빌바오에 한국어를 배우고 가르치는 곳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다 차츰 K-POP이나 K-DRAMA 같은 한국 문화가 확산하면서,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학생들의 숫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최초로 개설된 한국어반 학생들은 10대 중·고등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거의가 K-POP에 매료된 어린 학생들이었다. 하지만 10대뿐만 아니라,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학원을 거쳐갔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이유도 다양각색이었다. 한국 드라마에 반해서, 한국 문화가 좋아서, 한국 음식이 맛있어서, 한국에 여행 가고 싶어서 같은 이유였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대부분은 여성들이었지만, 남성들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겨우 열 살 밖에 안 된 초등학교 남학생도, 30~40대 직장인도, 50대 대학교수도 한국어를 배우러 왔다.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 있는 학생이 있다. 정년 퇴임을 앞둔 대학교수였다.
아주 내향적이고 가족과도 소원했던 딸이 어느 날 '슈퍼주니어'의 노래를 듣고 있는 걸 보고, 딸을 이해하고 싶어서 자신도 낯선 아이돌 음악을 접하게 됐다는 분이였다. 한국어 노랫말을 자막 없이 이해하고 싶고, 손편지도 쓰고 싶다며 한국어를 배우러 온 것이었다. 슈퍼주니어를 함께 들으며 이 모녀는 콘서트도, 여행도 함께 다니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됐다고 한다.
모두 한국어를 공부한 덕분이라며, 행복해 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바스크의 이 작은 도시에서도 일본과 중국, 두 나라의 문화와 언어는 저변이 상당히 넓은 편이다. 이곳에서 처음 한국어 강의를 시작했을 때에 비해 지금은 한국어를 강의하는 곳도 몇 군데 생기고, 학생수도 상당히 늘었다. 하지만 아직 두 나라의 영향력에는 못 미친다.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같은 큰 도시에는 한국문화원도 있고 한식당도 즐비하여 원하는 만큼 한국 문화를 접하고 맛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이곳 빌바오에는 정통 한식당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곳에서 한국 문화를 더 알고, 더 많은 이들이 즐길 수 있게 하려면 어린 학생들의 자발적인 K-POP 사랑에만 기댈 수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한 사람의 한국어 강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했다. 그 끝에 내린 결론은 한국어 수업과 붓글씨 수업을 병행해 보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오래 전부터 서예에 관심은 있었지만, 초등학교 시절 수업 시간에 잠깐 배운 것이 전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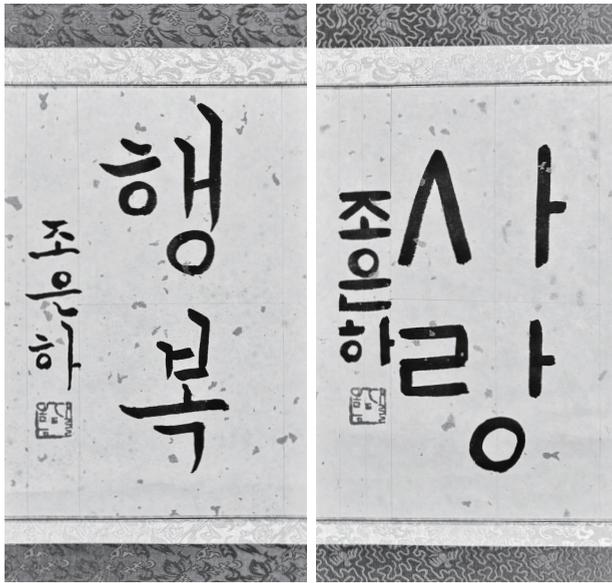
마침 이번 여름 휴가 차 부산 집에 오게 됐고, 도홍 김상지 선생님을 만나게 됐다. 한 달가량 부산에 체류하면서 도홍 선생님께 한글 서예의 기초를 조금 배웠다. 그래서 아직은 학생들을 지도할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고 실력을 쌓아서 학생들을 아름다운 한글 붓글씨 쓰기의 세계로 안내하고 싶다.

한글 붓글씨 같이 배워요!

¡Aprendamos juntos caligrafía coreana!

조은하

스페인 빌바오에서 한국어와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름, 부산에서 쓴 붓글씨, 2024



지금, 부산문화재단 15주년

부산문화재단의 '지금'은
지난 시간 쌓아온 노력의 결과물이자
앞으로 펼쳐질 미래 가능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창립 15주년을 맞이하여
재단의 '지금'을 만드는 데 함께해 준 이들의
진솔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봅니다.

베를린 감각 단상



글·사진. 양나영



SomoS Artist Residency, Berlin, Germany, 2024

프랑크푸르트에 내려 베를린으로 경유하는 비행기를 타니 거짓말처럼 한국인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국제적인 도시라더니 정작 로컬 슈퍼마켓에선 영어를 쓰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웠고, 점차 내가 '진짜 독일'에 왔구나를 실감했다.

레지던시에 지원한 이유는 순전히 독일에 가기 위해서였다. 몇 년 전 경험했던 독일의 차갑고 선명한 공기도 좋았고, 독일어의 발음과 지나치게 개념적인 특징도 마음에 들었다. 사실 작업과 관련된 이유가 가장 컸다.

작업의 소재로 집과 관련한 개인적인 기억에 대해 다루고 있다. 초기에는 주로 사물의 외형을 재현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어느새 개념이나 은유를 특정 이미지로 나타내는 방법들을 실험하게 되었다. 작업이 변화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트라우마에 가까운 기억의 원형에서 멀어지며 마음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데 작업을 위해 억지로 기억을 상기할 필요가 없었다. 개인적인 경험과 강렬한 감정은 여전히 작업의 원동력이었지만, 기억을 재료처럼 여러 방법으로 다루고 싶었다.

그 과정에서 역사의 트라우마, 특히 홀로코스트와 연관된 연구를 접하게 됐다. 특히 과거의 불의, 고통, 억압과 죽음과 관련하여 발터 벤야민이 과거, 역사를 구원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부분은 개인적인 기억에도 적용될 수 있었다. 그가 제시한 은유로 잔해나 파편 조각은 특정 이미지를 연상시켜 외형적인 재현 방법을 넘어서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나의 현재는 거대한 역사와는 너무 멀리 있는 느낌이었다. 사적인 기억보다 역사적 트라우마의 범위는 훨씬 깊고 어두웠다. 그저 방법론만 작업에 적용하는 것 같은 윤리적 고민도 있었다. 그러던 차에 해외 레지던시 파견지원 사업 공고를 보게 된 거다. 지원서에 고민을 그대로 적었다. 이렇게 솔직한 지원서는 내가 봐도 처음이었다. 당장 내가 독일에 3개월을 간다고 해도 외국인, 어쩌면 관광객의 관점에서 그 도시를 대할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일단 독일에 도착해 그곳의 사람들과 내 고민을 얘기해 본다면 이전과는 확실히 다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도착한 지 나흘 만에 'Introduction Session' 시간을 가졌다. 서로의 작업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였다. 딱딱한 분위기를 예상했지만, 가장 편한 모습으로 서로의 작업에 대해 거침없이 질문했다. 그게 무례하다거나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소위 말해 피 터지는 크리틱같지도 않았고, 작업을 더 이해하고 싶어서 던지는 환영의 질문 같았다. 내 작품 발표에서는 부산의 도시 장면을 재현한 구성에 관심을 보였다. 작업이 추상적으로 변해가

는 과정에서 흔적과 기억의 연구에 대한 부분도 그 깊이를 존중해주는 것 같았다. 대체로 분위기가 가벼웠기 때문에 여길 오고 싶었던 가장 큰 고민은 크게 언급하지 않았다.

2주가 채 지나기 전에 이곳 레지던시 출신 큐레이터가 스튜디오를 방문했다. 한 시간가량 이야기를 했다. 내가 홀로코스트에 대해 언급하자마자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에 대해 바로 파악했다. 그러곤 명확하게 특정 사건에 대해 언급할 게 아니고 특정 아카이브나 개념, 이미지 등 거기서 오는 느낌을 참고할 수 있다고, 흥미로운 지점으로 발전할 거라고 격려해줬다. 많은 자료를 참고한 결과가 추상적인 이미지로 나오는 부분도 좋게 보았다. 이런 지점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해서, 무턱대고 여기 사람들과 많이 얘기하는 수밖에 없지 않냐고 했다. 후에 내 포트폴리오 발표를 들었던 인턴이 가족 이야기를 해주며,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독일의 역사가 자기 가족들이 겪었던 실제 삶이라고 했다. 유대인 친구를 소개시켜 줄 수도 있다고 했다. 그 인턴은 폴란드에서 온 사람이었다. 다음에 다른 작가들과 함께 동독의 감시 사회에 대한 생생한 자료와 정보를 담고 있는 'Stasi Museum'에 가보기로 약속했다.

다음 날, 하루 만나절을 베를린 장벽 주변을 둘러보는 데에만 썼다. 기억에 관한 특정 사유를 이미지로 드러내는 데 사용했던 파편과 더미들이 여기엔 역사라는 이름 아래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공원에서 진중하게 아카이브를 읽어나가기도, 한없이 뛰어놀기도 하고 그저 가만히 누워있기도 했다. 날씨가 좋아서 더 미묘했다. 그러면서도 베를린이라는 도시의 정신이 부러웠다.

자신을 넘어서 주변 환경을 반영할 준비를 하는 것. 레지던시 기간 동안 실마리를 얻고 싶은 부분이었고, 심사평에서 언급했던 여기서 날 뽑아준 이유이기도 했다. 3개월은 이 모든 걸 소화하기에 참 짧은 시간이다. 아니, 감각하기에도 부족하다. 벌써 한 달이 지나간다. 남은 기간 동안 씨름하는 주제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 다음에는 3개월이 아닌, 최소한 1년 아니 더 긴 기간을 이곳에서 보내고 싶다.

양나영

회화를 기반으로 입체, 발견된 오브제를 다루며 기억에 관한 여러 방법과 매체를 실험 중이다.

과거의 경험을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원의 가능성에 관심이 있다.

건강한 예술이 탄생하는 공간에서

글·박정윤
사진·박병민



공간 그리다부부, 2022

누운 상태로 기지개를 펴고 아기 자세로 척추를 이완한다. 손목발목, 무릎을 회전하고 척추 비틀기를 한 다음 복근 운동으로 열을 낸 후 롤업(등부터 일어서기)으로 일어난다. 특히 거리 공연 또는 장소특정 퍼포먼스가 있는 날이면 충분히 워밍업 후 하루를 시작한다. 공복을 달래고자 간단한 식사 후 퍼포먼스에 사용할 음악과 의상, 소품과 촬영도구, 기계 등을 챙겨 장소로 이동한다. 거리공연의 리허설은 일종의 홍보역할을 같이 한다. 거리와 공간에 음악이 울리고 행위를 하다 춤추고 있으면 주변의 상가, 그곳을 오가던 사람들이 발길을 멈춘다. 가끔 비 올 때를 대비해야 한다. 오늘은 어떤 사람들과 만날 수 있을까?

작업을 할 때 가장 염두에 두는 부분은 '우리는 왜 움직여야 하는가?'이다. '왜'라는 질문은 공연의 방향과 색깔, 주제를 묶어 독특한 움직임을 끌어낸다. 준비기간 동안 응축하는 움직임을 발견해내면 함께하는 크루(춤꾼, 스태프)와의 소통이 단단해진다. 영화를 만드는 이유는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그 무언가를 담아내기 위함이라고 한다. 춤은 몸이라는 매개를 통해 공간 속의 공간을 새롭게 창조한다. 특히 그 공간에 오래 머무는 사람들이 우리의 공연을 통해 어떤 감정의 변화를 느끼길 바란다. 그들의 하루에 생기가 채워진다면 그 공간을 찾는 사람들의 시간과 느낌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11년 동안 '더발레프로젝트'가 활동하면서 공간과 주고받은 큰 힘은 공간을 통한 공감이다.

감천문화마을 반딧불이 입주작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레지던스로 지낼 수 있었다(2020~2022). 입주작가에게는 유희공간에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 많아 레지던스가 가능해야 한다. 반면, 앞선 3년 동안 입주해 있었던 감만창의문화촌이라는 공간은 공연예술단체에 필요한 연습실과 다양한 예술분야 작가들이 한 자리에 밀집되어 편히 교류 할 수 있는 융합적인 공간이었다(2017~2019).

레지던스의 강점은 특정 지역을 더 깊숙이 들여다본다는 데 있다. 마을 곳곳을 누비며 지역민과 서로의 근황을 나누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기록한다. 특히 감천문화마을에 살고 있는 소수 어린이들에게는 놀이터와 횡단보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구청에서 놀이공간을 만들겠다고 했다가 용도를 변경해버렸고, 구불구불한 골목 어귀에서는 늘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

'57project'는 입주 공간 주변에 있는 골목 계단의 숫자를 착안하여 제목을 지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60분 동안 퍼포먼스로 구성하여 예술가들과 비예술가들이 함께 바닥에 앉아 횡단보도와 놀이터를 그리고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완성해 나간다. 안전요원도 차량통제 보다는 차량통행이 위험하지 않도록 퍼포먼스에 참여한다.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나한테 달려있다. -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 29회, 김수현

좋은 아름다운 고강도 운동이다. 몸에 열을 내면 면역력이 높아지며 혈액순환을 돕고 관절과 근육이 보다 부드러워진다. 몸이 부드러워지면서도 뼈를 강화해서 건강에 이롭고 무엇보다도 나의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어제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 다음 날 컨디션이 달라진다. 표현의 매개인 몸과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한 작품이 나오기 어렵다.

더발레프로젝트의 움직임은 우리의 삶이 더 건강하기 위해 자연생태 위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위험요소를 개선하고자 하는 바람을 담았다. 조금씩 공간을 회복하다 보면 매일 걷는 길이지만 그 길이 다르게 보인다. 나는 그런 삶이 좋다.

건강한 예술은 건강한 예술가들이 만들어 나간다. 6년 동안의 입주단체 활동, 서울무용센터의 생활, 도시재생과 예술과의 연결지점 등을 통해 다시금 확신이 드는 것은 ‘사람’의 역할이다. 우리 지역은 과연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예술가들이 활동하기에 적합한 환경인지 주위를 둘러 본다. 또한 지역 예술향유인구 성장을 위해 감각적이고 참신한 진행형 인지에 대해서도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거리공연 및 장소특정 퍼포먼스 활동을 통해 다양한 예술기획자 및 부산문화재단 담당자들과 행보를 함께 해왔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예술가와 현장 관객들이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기획자다.

머리로만 구상하고 현장 한 번 못 들리거나 예술가와 소통이 미숙한 기획은 탄로가 나고 만다. 바로 관객들에게 말이다. 또한 오늘날에는 예술작업을 홍보하는 기획자의 능력이 중요하다. 보는 이로 하여금 예술 활동을 하고 싶어지게 하는, 기획자의 미적 감각을 동원한 설득력 있는 기획력이 절실하다.

예술을 창조하고 실천하는 역할은 사람이다. 좋은 작품은 관객 및 예술 향유자들과 예술시장이 알아본다. 하지만, 잠재적 감각과 가능성을 지닌 한 사람의 예술가를 발굴해 나가는 것은 결국 예술기획자들의 역할이다. 보이기 쉽지 않는 일이다. 이럴 땐 입주작가들의 문을 자주 두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더발레프로젝트는 그러한 기획자들과 함께 성장해 오고 있다. 자주 만나 차 한잔 우려마시고 식사 한 끼 나누며 이야기를 쌓아왔다.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지치고 힘들지만 예술가들과 함께 걸기를 자처한 그들의 역량과 미적 감각이 종종 그림다.

삶은 긴 마라톤이다. 어제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고 내일이 다가온다. 습관이 태도가 되고 미래가 된다는 말을 늘 기억한다. 그래서 과거-현재-미래의 키워드가 균형이 잘 맞아가고 있는지 고민한다. 중요한 지점은 세상의 소수가 정해놓은 유용함 뿐만 아니라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들의 유용함을 발견하고 세상에 알리며 지켜나가는 삶을 이어나가고 싶다. 사람들은 이들을 예술가라 부른다.

몸도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자연생태 위기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잃어가는 데서 시작된다. 더 발레프로젝트는 몸이라는 공간과 도시라는 공간을 예술적 행위로 매개하여 회복 지점을 찾으려 한다. 오래된 것들, 자연을 무참히 파괴하고 없애버리는 삭제의 도시가 아니라 지켜나가되 현재 우리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회복 행위의 선택과 유지가 필요하다.

현대사회가 과거의 공간을 삭제해서 그럴까? 사람의 도리도 삭제되어간다. 시대가 변해도 지켜나가야 할 태도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삶이 필요하다. 우리는 삭제의 도시에 살고 있는가, 재생하고 회복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가? 이런 극단의 불균형 속에 진행된 파괴와 대량생산은 자연생태의 위기와 기후재난의 시대를 만들었다. 몸짓으로 예술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 몸과 정신이 매개하는 회복의 행위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기도 하다. 더 많은 사람이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따스함을 토대로 살아 나갈 수 있는 힘을 채워 넣으며 예술을 마음 한 칸에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연속성 있는 몸짓을 통해 삭제 행위를 지연시키고자 한다. 그 행위가 회복하는 삶으로 이어져 오늘이 소중하기를 몸으로 말하려 한다.

박정윤

컨템포러리댄스 연출가이자 춤꾼 더발레프로젝트 대표.

발레를 기초로 현재는 현대춤과 힙합, 요가, 한국춤을 두루 움직이며 실용적인 예술을 현실화 하는 몸과 움직임의 찾아가고 있다

여전히 '우리 회사', 부산문화재단

글·사진. 하영문



퇴직금으로 떠난 포르투갈에서 찍은 사진(1), 2023

‘우리 회사’... 떠올리기만 해도 머리 아픈 존재다. 하지만 막상 없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도, 우리 엄마의 마음도 공허해지는... 2년 전까지 부산문화재단은 나에게 ‘우리 회사’였다. 나를 힘들게 하면서도, 없다고 상상하면 허전한 그런 곳, 한때 내 이름과 늘 함께하던 존재.

지금은 사진 촬영업을 하는 2년 차 자영업자가 되었지만, 아직도 무심결에 부산문화재단을 ‘우리 회사’라고 부를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부산문화재단이 내 삶에서 쉽게 떼어낼 수 없는 존재임을 실감하게 된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학 졸업을 앞두고 앞날이 막막하던 시절, 내가 간절히 입사하고 싶었던 곳이 바로 부산문화재단이었기 때문이다. 합격 소식을 확인했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생생하다. 그때의 부산문화재단은 나에게 자부심이었고 나의 큰 포부를 담은 시작이었다.

하지만 부산문화재단에서의 첫 1~2년은 고비의 연속이었다. 업무보고 예산란에 오타를 내거나 현수막 사이즈를 잘못 뽑는 실수는 흔하고, 행사 당일 내리던 비처럼 예상할 수 없는 일들까지...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이 연일 터지던 시절이었다. 연차가 어느 정도 쌓이고 뽀뽀함이 기본으로 탑재된 시점어야 돌이켜보면 어떻게든 수습할 수 있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때는 모든 것이 내 잘못 같았고 작은 실수에도 깊이 상심하던 ‘유리멘탈’ 시절이었기에 매 순간이 크나큰 위기처럼 느껴졌다.

그런 순간들마다 조용히 선배들이 나타나주었다. 때로는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가 하면 때로는 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며 함께 화를 내주기도 하고, 때로는 밥을 사주기도 했다. 그들의 방식은 각기 달랐지만, 모두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또 후배들과 인턴 대학생들이 정성스레 써준 편지, 점심시간에 함께 커피를 마시며 산책하자던 팀장님, 좋은 경험을 주어 고맙다고 인사해주던 시민들에 대한 기억도 내 회사 생활의 원동력이 되어주었다. 내가 일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와 상처는 결국 사람들을 통해 치유되었고 나는 그 덕분에 계속 나아갈 수 있었다.

부산문화재단에 근무하던 어느 날 연말 표창을 받으며 수상 소감으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어떻게든 1인분 하게 만들어준 선배들에게 고맙습니다. 나도 선배들 같은 선배가 되겠습니다.”라고... 뽀뽀하게도 그 이듬해 퇴사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의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지금은 내 20대 절반을 함께했던 부산문화재단을 떠났지만, 내 삶은 여전히 그 시절을 담고 있다. 부산문화재단에서 행사를 기획하던 나는 이제 그 행사를 사진으로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고, 견적서를 검토하던 나는 직접 견적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가끔 촬영 현장에서 생기는 예기치 못한 일들도 재단에서 현장 민원을 처리하던 경험 덕분에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다. 지금에야 별 것 아닌 일들이지만 부산문화재단에서의 경험이 없었더라면 많이 어려웠을 일들이다.

퇴사 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나의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부산문화재단에서 보낸 시간은 내 일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였기에, 그 시간들을 쉽게 잊을 수 없다. 동료들에게 받은 응원과 위로 그리고 부산문화재단에서 일하며 여러 사람들에게 배운 삶의 태도들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에게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듯 가끔 부산문화재단을 ‘우리 회사’라고 부를 때 흠칫하며 아, ‘우리 회사’가 아니지 하고 바로잡기도 하지만, 재단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하면 글썽... 여전히 ‘우리 회사’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끝으로 눈치도 다소 부족하고 재주도 미미하던 내가 이제 자영업자로서 한 사람 몫을 해낼 수 있는 이유는, 이 글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당신 덕분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 기회를 빌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나도 행복할 테니 당신도 꼭 행복하기를!

아직 보진 못했지만 마냥 좋아서 저장해두었던 영화 <별새>의 대사로 글을 맺는다.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 어느 날은 알 것 같다가도 정말 모르겠다. 다만, 나쁜 일들이 닥치면서도 기쁜 일들이 함께 한다는 것. 우리는 늘 누군가를 만나 무언가를 나눈다는 것. 세상은 참 신기하고 아름답다.”

하영문

부산문화재단에서 스물다섯 살부터 서른한 살까지 업무보고로 이야기하던 사람.

재단을 떠난 후 사진으로 이야기하는 2년 차 자영업자가 되었다.



퇴직금으로 떠난 포르투갈에서 찍은 사진(2), 2023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글. 박재현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서, 어느새 2년 넘게 홍티아트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다. 부족함이 많아 고생을 했지만, 인내심 많은 선임 분들 그리고 시설에서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는 작가님들의 이해 속에 어찌저찌 일을 해내고 있다. 그래도 이따금 벅찰 때가 종종 있다.

그때마다 이전에 이룬 작은 성취의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금 힘을 내려고 한다. 얼마 안 되지만, 내가 이뤄낸 작은 성취들이 있다. 그 중 기억에 남는 경험들은 주로 몸으로 뛰어들며 고생한 경험들이다. 영화과를 다니며 배운 것 중 하나는 ‘고생은 반드시 미화된다는 것’이다. 촬영장에서 아무리 죽도록 고생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좋은 인상만 남는다는 점은 영화과의 오래된 미스터리 중 하나다.

고생의 기억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호주에서 온 ‘매튜 뉴커크’ 작가와의 일화들이다. 매튜 작가는 굉장히 유쾌하고 적극적인 성격이었다. 사람들과도 곧잘 친해졌고, 외국인이라 다니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을 터임에도 이곳저곳을 잘 돌아다니며 늘상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 오곤 했다. 그런 그에게도 작품을 위한 재료를 사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다.

작가는 설치 작품을 만들기 위해 PVC 파이프와 조화를 필요로 했다. 호주 작가를 도우면서 생전 해본 적 없던 영어 회화를 하며, 부단히 애를 썼다. 부족한 예산안에 맞추기 위해 여러 파이프 업체를 작가와 함께 돌며 단가를 맞추려 했고, 조화를 찾기 위해 부산진시장을 온종일 돌았다. 아무리 찾아도 예산에 맞는 단가의 꽃을 취급하는 데를 찾지 못해 포기하려던 때에 마지막으로 들린 가게에서 단가를 맞췄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기쁨도 잠시. 산 넘어 산이라고, 작품을 설치하는 일도 난관이었다. 무게가 있고 무게중심이 넓게 펼쳐진 조형물을 천장에 매달아야 했다. 조형물을 줄에 매달아 끌어올리던 줄이 끊어져 추락했을 때, 마음도 ‘쿵’ 하고 떨어지는 줄 알았다. 그렇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작업실에서 쉬고 있던 다른 작가님 한 명까지 합세해 설치에 힘을 모았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작품을 천장에 매다는 데 성공했다. 뒤로 물러나 설치된 작품을 보면서 나는 온몸이 저릿해 오는 것을 느꼈다. 작품이 주는 위압감과 생경함 그리고 기괴함이 몸으로 느껴졌다. 작품이 좋았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렇게 고생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일까. 아직도 잘은 모르겠다.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완성한 작가의 전시는 내 기억 속에 굉장히 강한 인상으로 남아 있다. 매튜 작가와는 아직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래도 해프닝으로만 남게 되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고생은 결국 미화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고생은 다시금 나를 움직이게 하는 연료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면서 오늘도 새로운 고생을 자처하고 있다.

박재현

부산문화재단 문화공간팀에서 근무중이다.

요즘 식물에 많은 관심이 있다.

★ 부산문화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의 행사 일정입니다.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B 10. 16.(수) ~ 10. 30.(수)
홍티아트센터
홍티아트센터 릴레이 개인전 6 - 지민석

B 10. 22.(화) ~ 11. 5.(화)
조선통신사역사관
<조선통신사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7주년 기념 특별전시>

B 10. 24.(목) ~ 11. 1.(금)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온그루
2024년 장애예술 워크숍 <오픈코드>

B 10. 26.(토)
감만창의문화촌
감만상상데이

B 10. 26.(토) ~ 11. 24.(일)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6층 신세계갤러리
청년예술가 3인전

★ 10. 31.(목) ~ 11. 1.(금)
부산문화회관
루체테음악극연구소 <창작오페라 '페스트'>

★ 11. 2.(토)
해운대문화회관
아모로제 성악연구회 <괴테 인 오페라>

B 11. 4.(월) ~ 11. 16.(토)
창작공간 두구
창작공간 두구 릴레이전 4 - 김리아

★ 11. 4.(월) ~ 12. 3.(화)
예술지구P
**부산도예가회
<CONNECT & EXCHANGE - Bridge over
Ceramics>**

★ 11. 5.(화)
부산문화회관
무지카비바 <제36회 정기연주회>

★ 11. 6.(수)
영광도서
**부산시울림시낭송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시울림콘서트>**

★ 11. 6.(수) ~ 11. 10.(일)
소극장6번출구
따뜻한사람 <우리는 언제나 00였다>

★ 11. 9.(토)
금정문화회관
꼬레아오페라단 <에르나니-베르디>

★ 11. 10.(일)
금정문화회관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제67회 정기연주회>

★ 11. 10.(일)
국립부산국악원
일통고법보존회 <제19회 정기연주회>

★ 11. 15.(금) ~ 17.(일)
BNK아트시네마
**관객문화협동조합 모퉁이극장
<제2회 무연고 영화제>**

★ 11. 16.(토) ~ 11. 24.(일)
부산예술회관
사진단체 중강 <부산지하철 2호선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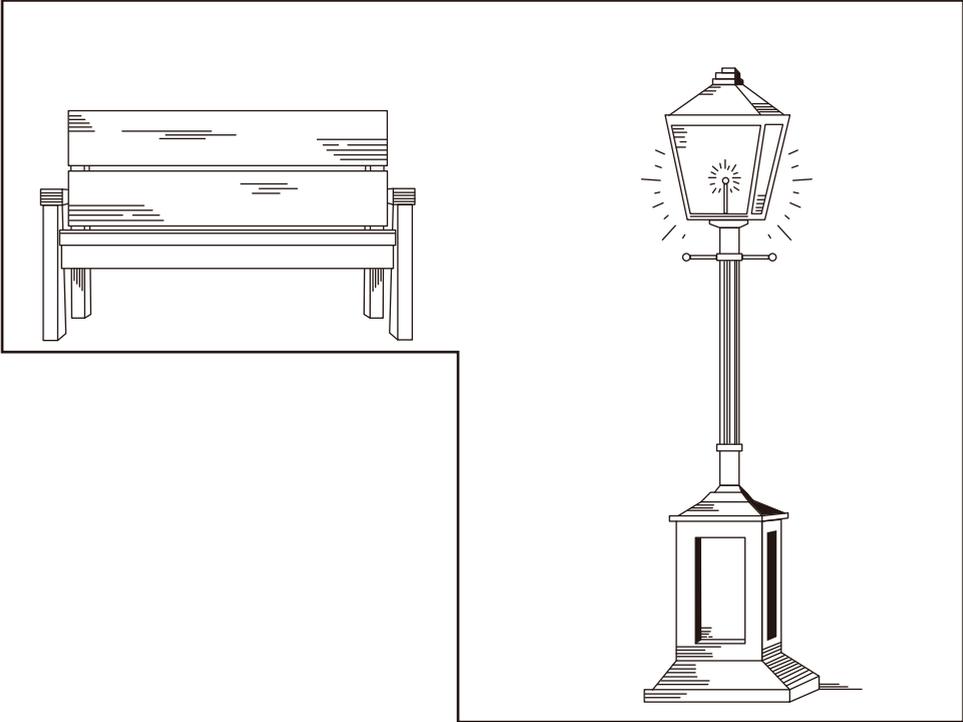
★ 11. 19.(화)
금정문화회관
부산성악아카데미 <이탈리아 오페라 여행>

- ★ 11. 19.(화) ~ 11. 23.(토)
공간소극장
극단 어니언킹 <ㅋㅋㅋ>
- B 11. 20.(화) ~ 11. 29.(금)
창작공간 두구
창작공간 두구 릴레이전 5 - 노만
- ★ 11. 20.(수) ~ 12. 5.(목)
해운대문화회관
빅픽처스테이지 <뮤지컬 '미스터 마담'>
- ★ 11. 21.(목)
부산문화회관
**드림문화오페라&오케스트라
<바로크오페라 아서왕>**
- ★ 11. 30.(토) ~ 12. 8.(일)
어댑터씨어터
극단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 <미디어헬렌>
- ★ 12. 1.(일) ~ 12. 31.(화)
영산대학교
엘일루전 <한국 '렌턴'>
- ★ 12. 3.(화) ~ 12. 7.(토)
공간소극장
극단 어니언킹 <ㅈㅈㅈ>
- ★ 12. 4.(수)
인본사회연구소
**부산시울림시낭송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시울림콘서트>**
- ★ 12. 4.(수) ~ 12. 7.(토)
용천소극장
부산연극제작소 동녘 <우리별>
- ★ 12. 5.(목) ~ 12. 7.(토)
신명천지소극장
극단 자갈치 <마당극 소리내력>

- ★ 12. 5.(목) ~ 12. 7.(토)
북구문화예술회관
극단 해풍 <포빅타운>
- B 12. 5.(목) ~ 12. 19.(목)
창작공간 두구
**<창작공간 두구 릴레이전 6
- 극단 에파타>**
- ★ 12. 5.(목) ~ 12. 8.(일)
일터소극장
극적공동체 고도 <난쟁이들>
- ★ 12. 6.(금) ~ 12. 8.(일)
민주공원
극단 더블스테이지 <누나의 길>
- ★ 12. 7.(토)
금정문화회관
**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81회 정기연주회>**
- ★ 12. 17.(화)
부산문화회관
**피아노양상블 무미건조
<Step on the two piano>**
- ★ 12. 20.(금)
부산예술회관
부산광역시문인협회 <시민문예강좌>
- ★ 12. 22.(일)
부산문화회관
**부산 클라리넷 콰르텟
<Concert of Concerto>**
- ★ 12. 27.(금)
영도문화예술회관
부산발레시어터 <호두까기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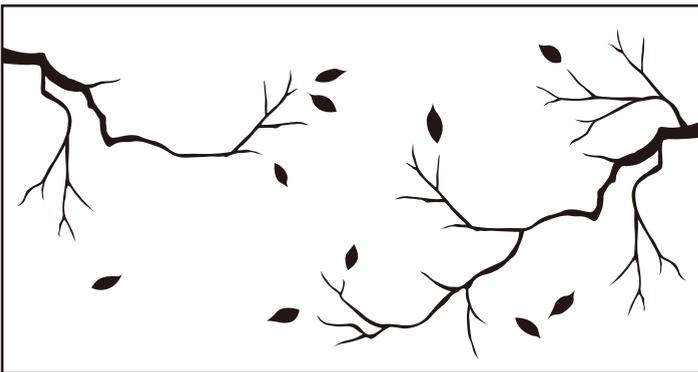
더위 다음 추위

김지훈



해일에게 햇살이 내린다. 해일은 몸을 비빈다.

해일: 분명 더웠는데, 언제 이렇게 추워진 거지?



장소

광장 속 벤치 하나, 가로등 하나, 계절을 알 수 없는 나무들

등장인물

해일

요원

외투를 걸친 해일이 애처롭게 서 있다. 그의 입김이 무대의 공간을 채운다.
손과 몸을 비비며 체온을 높이려는 그의 몸짓이 애잔하다. 그는 언 입을 녹이기 위해
입을 비비다가 혼자 중얼거린다.

해일: 너무 춥다. 이렇게 추운데, 약속 시간이 한참이나 지났는데, 연락 한 통이 없다.

사이.

해일: 날 무시하는 걸까? 아니겠지? 아닐 거야.

사이.

해일: 기분이 좋지 않아. 이제는 내가 중요하지 않은 건가? 설마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겠지? 아냐, 잠자코 기다려봐야지.

사이.

해일: 그래도 이건 너무 하잖아. 이렇게나 추운데. 행여나 늦을까 봐 택시까지 타고
왔는데, 바보가 된 거 같아.

이때 해일의 어깨를 툭 치며 등장하는 요원. 화들짝 놀라는 해일.

요원: 맞지?

해일: 네?

요원: 맞구나.

해일: 어? 어!

해일은 다시 화들짝 놀라서 벌떡 일어난다.

요원: 여기서 만나네.

해일: 요원이니? 너 요원이 맞지?

요원: 그래. 맞아. 너도 내가 반갑구나?

해일: 너 진짜 요원이구나. 반갑지. 당연히 반갑지. 진짜 너무 반가워. 잘 지냈지?

요원은 벤치에 앉는다. 해일도 따라 앉는다.

요원: 춥다. 올해는 유독 더 추운 거 같아. 근데 넌 옷이 그게 뭐니? 그러다 감기 걸리겠어.

해일: 아? 춥긴 하네. 근데 많이 춥니? 그렇게나 추워?

요원: 아니,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너 말이야. 이렇게 추운데, 옷을 그렇게 입고. (멈칫) 그러게? 너 지금 밖에서 뭐 하니? 너 여전히 좀 이상하구나.

해일: 내가 이상해?

요원: 아니, 뭐 내가 널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행동을 하잖아.

해일: 사람들이 날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 아니야. 그건 중요한 것도 아니야. 근데 너는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좋겠어. (사이) 너도 그렇게 생각했어?

요원: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 너 이상하다고,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애들이 다 그랬잖아. 기억 안 나? 나는 물론 그렇게는 생각 안 했는데.

해일: 누가? 어떤 애들이? 개들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떠들어. 나 친구도 없었어.

지들이 뭘 안다고 그래? 누가?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해? 친하지도 않으면서.

요원: 모르지. 그걸 다 어떻게 일일이 기억해. 어쨌든 다들 그렇게 말하곤 했어.

해일: 너도? 너도 그렇게 생각해?

요원: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정말이야. 근데 오늘은 좀 이상하다.

그렇게 난리 치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해일: 이상해? 나 오늘은 이상해? 오늘만 이상한 거지?

요원: 아니. 너무 춥잖아. 이렇게 추운데, 벤치에서 이려고 있는 게 이상하잖아.

해일 처량한 표정 짓는다.

해일: 그냥, 그냥 누군가 좀 기다리고 있었어.

요원: 누구? 여자?

해일: 아니, 여자는 무슨, 그냥 선배. 아는 선배랑 만나기로 했어.

요원: 선배? 우리 학교 선배?

해일: 응, 선배. 너도 알겠잖아. 학교 선배니까.

요원: 대학 선배들, 뭔가 다 징그럽다. 그렇지 않아? 뭔가 더러워.

해일: 그래? 그런가? 그래도 이 형은 정말 좋은 사람인데.

요원: 그런 사람이 이렇게 추운데 기다리게 해?

해일: 일이 있나 봐. 아마도 그런 걸 거야. 이 형은 정말 좋은 형이거든.

요원: 전화해 봐.

해일: 어? 그럴까? 그래볼까? 그래도 되겠지?

요원: 안 될 게 뭐 있어? 야! 전화하기도 힘든 사람인 거 같은데, 그런 사람이 뭐가 좋은 사람이니?

해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좋아, 전화해 볼게.

해일은 언 손으로 전화를 건다. 전화 연결되지 않는다.

요원: 이렇게 추운데, 봐봐! 입김이 막 나오잖아. 그런 데도 좋은 사람이라고?

해일: 실망한 듯, 고개를 숙인다.

해일: 그럴지도 모르겠다.

요원: 그래서?

해일: 그래서라니?

요원: 아니! 그런데도 계속 기다릴 거야?

해일: 그래야겠지.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요원: 그래. 그게 맞긴 하지. 근데 늦었잖아. 연락도 없고. 연락도 안 받고. 무엇보다 너무 춥잖아. 우리나라는 너무 추워.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너무 추워.

해일: 다른 나라는 이렇게까지 안 추워?

요원: 뭐 그렇지. 다른 나라 안 가봤어?

해일: 어, 가본 적은 있는데. 추울 땐 가 본 적 없는 거 같은데.

요원: 추울 때 가 본 적이 없구나. 하여튼 우리나라는 너무 추워.

해일: 너는 어딜 가봤는데?

요원: 나야, 뭐 여기저기 많이 가봤지. 또 갈 거야.

해일: 또? 어딜?

요원: 어디긴 다른 나라지.

해일: 너 멋있게 사는구나.

요원: 아니, 그렇지도 않아.

짧은 사이.

해일: 그럼, 어디 잠깐 들어갈래?

요원: 시간이 있는지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해일: 아, 혹시 시간 있어?

요원: 너는 참.

해일: 미안해. 그럼 우리 어디 들어갈까?

요원: 근데 그래도 돼? 사람 기다린다면.

해일: 연락 오겠지.

요원: 어디 들어갈 건데?

해일: 글썄? 어디든 여기보단 낫지 않을까?

요원: 맞아. 여긴 세상에서 제일 추운 거 같아. 정말 그런 거 같아.

해일: 맞아. 벌써부터 이렇게 춥다. 근데 진짜 시간 괜찮아?

요원: 바쁘지. 엄청 바빠. 그래도 오랜만에 봤으니까.

해일: 그래? 그럼, 어디 들어가자. 따뜻한 곳으로 가자.

요원: 그래 어디든 여기보다 추울까? 일어나자. 빨리 어디 들어가고 싶다.

두 사람 주섬주섬 일어난다.

요원: 옷은 대체 왜 그렇게 입었데? 그렇게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

너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이상하게 생각한다니까?

해일: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정말 날 이상하게 생각할까?

요원: 앞으로는 따뜻하게 입고 다녀.

해일: 근데, 그런 건 별로 안 중요해. 나는 네 생각이 더 중요해. 너는 그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지?

두 사람 걷는다.

요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게 꽤 중요한 거야. 나는 널 알잖아. 근데 사람들은 널 모르잖아. 사람들은 우릴 몰라. 겉모습으로만 판단한다니까.

해일: 아냐. 나는 그건 정말 별로 안 중요해. 네가 이상하게 생각 안 하면 돼. 나는 그게 중요해. 아니, 나는 그것만 중요해. 너는 나 진짜 나 이상하게 생각 안 하지? 그러면 난 조금 행복할 것 같아.

요원: 그래. 나는 너 이상하게 생각 안 하지. 정말이야. 믿어봐. 그래도 춥잖아. 여긴 너무 춥잖아. 아무래도 너무 추워.

해일: 맞아. 너무 추워. 조금 더 따뜻하게 입어야 했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요원: 어디 들어가면 따뜻해질 거야.

해일: 어디를 들어가야 할까? 우리 뭘 마실까? 따뜻한 것 마실까? 그래! 우리 따뜻한 커피 마시자?

요원: 좋아. 너무 좋겠다. 따뜻한 것 마시면 진짜 좋을 거 같아.

두 사람 서로 다정하게 바라본다.

이때 해일의 전화벨이 울린다.

해일: 네? 저 근처예요. 아, 기다렸는데, 안 오셔서.

해일 요원의 눈치를 살핀다.

해일: 네, 근처예요. 네, 진짜 얼마 안 갔어요. 네? 아, 그죠? 춥긴 한데, 괜찮아요. 참을 만해요.

해일 전화를 끊는다. 해일은 우물쭈물한다.

해일: 혹시 조금 기다려 줄 수 있을까?

요원: 가려고?

해일: 금방 끝내고 갈게. 어디서 만날까?

요원: 아냐. 내가 갈게. 그 벤치로 갈게.

해일: 벤치로?

요원: 응. 벤치로.

해일: 응, 그럼 벤치에서 봐.

요원 뒤돌아선다. 그러다가 다시 해일에게.

요원: 저기!

해일: 어? 왜?

요원: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나면, 술 마실래?

해일: 술? 술 마시고 싶어?

요원: 응. 술 마시면 좀 따뜻해질 거 같아서.

해일: 그래. 그러자. 우리 술 마시자.

요원: 그래. 조금 이따 봐.

요원 사라진다. 해일 사라지는 요원을 바라본다.

해일에게 햇살이 내린다. 해일은 몸을 비빈다.

-막-

김지훈

극작가. 무대에 올라간 작품으로는 <귀가>, <탁탁탁>, <아빠는 순찰 중> 등이 있다.

제37회 부산연극제 희곡상, 제9회 김문홍 희곡상을 수상했다.

부산문화재단 후원회원 모집

여러분을 부산의 문화예술인으로 모십니다.

부산의 문화예술을 풍성하게 만들고 싶은 분!

산소처럼 부산문화재단과 늘 함께하고 싶은 분!

문화예술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분!

화려함보다는 꾸준한 관심으로

재단과 기업체 그리고 시민들이 모두 하나 되어

단단한 후원을 쌓아가는 당신이야말로 부산의 문화예술인입니다.

후원혜택 1

세제 혜택(연말정산 등)

재단 기념품 증정

재단 발간도서 발송(공감 그리고, 연차보고서 등)

재단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 행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후원혜택 2

일반회원 매월 1만 원 정액 납부

연간회원 매년 20~50만 원 정액 납부

평생회원 500만 원 이상 일시불 납부

단체회원 단체, 기관, 법인, 기업이 1,000만 원 이상을 일시불로 납부

후원혜택 3

홈페이지

www.bscf.or.kr ▶ 열린광장 ▶ 후원회원 모집 ▶ 후원회원 가입 신청하러 가기

문의전화

재정관리팀 051-745-7253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공감 그리고>를 웹진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통권

54호 정기간행물(부산남 바 00007)
ISSN 2586-1077

등록일

2011. 6. 23.

발행일

2024. 10. 18.

발행인

이미연

편집위원

오성은 박보은

편집기획

기획홍보팀 김정 강보현

표지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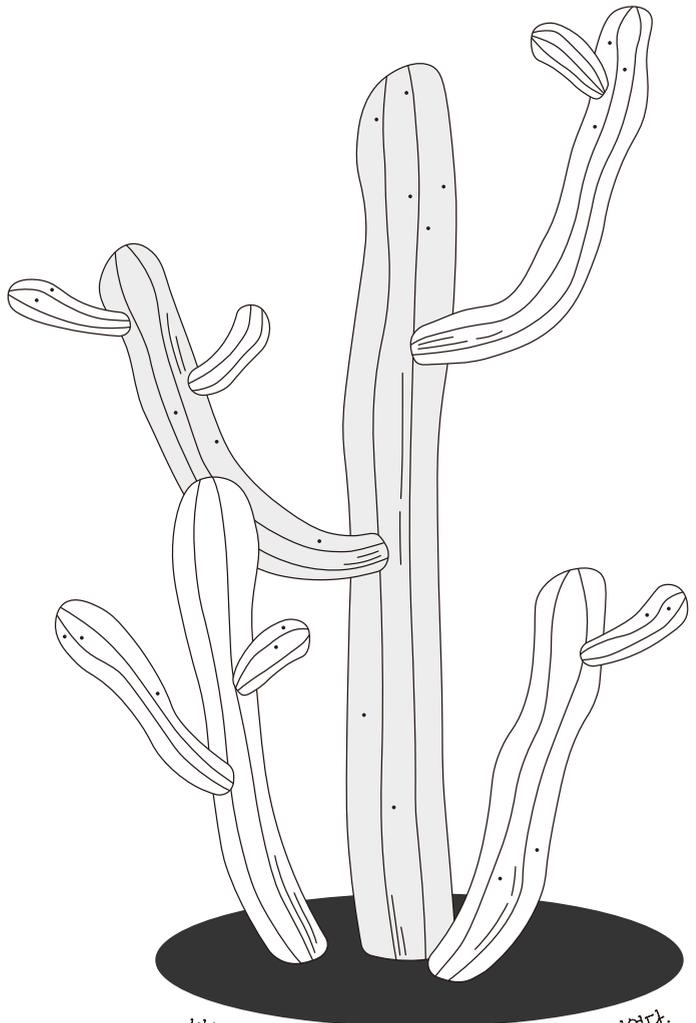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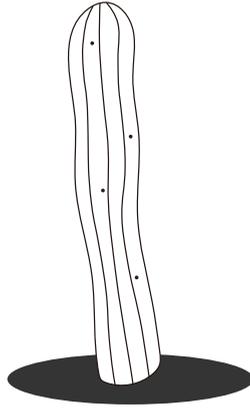
박보은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 051 744 7707
www.bscf.or.kr

디자인 및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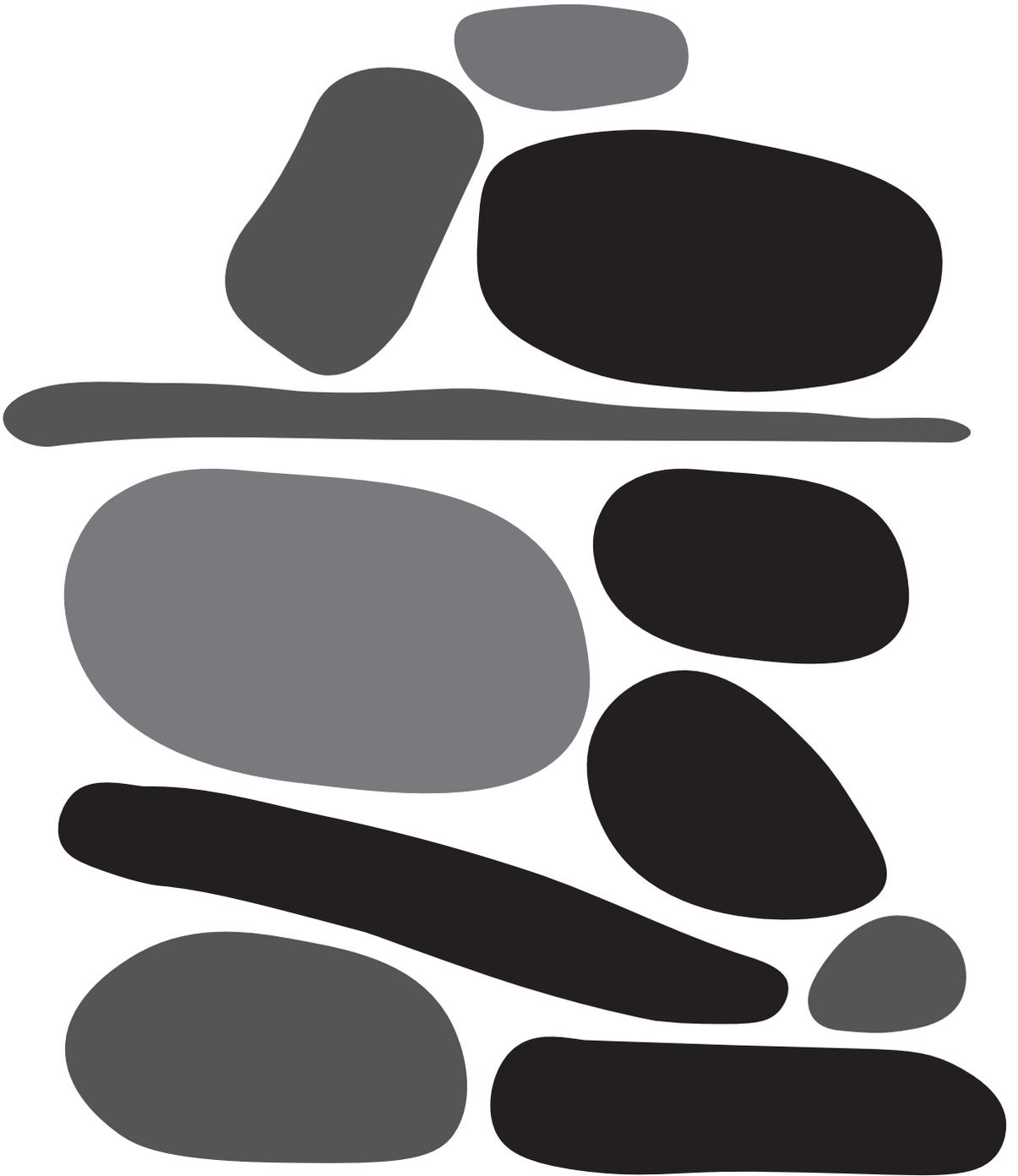
디자인글꼴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부산문화재단에서 발행하고 있는 계간지 「공감 그리고」는 문화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정보 제공형 문화예술 잡지'입니다. 「공감 그리고」에 실린 글과 사진은 부산문화재단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감 그리고」에 실린 글은 모두 개인 필자의 의견임을 밝혀드립니다.

녀석은 더는 연필의 끝은 형태가 아닌 연필 선인장이었다.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ISSN 2586-1077

좋은 습(習)이든 나쁜 습(習)이든 몸에 체득되어 자리 잡는 순간
좋고 나쁨의 구분조차 되지 않는 것이 습(習)의 치명적인 매력이다